

배경지식과 끊어읽기

지문론 고3편

지은이 정성봉

퍼넌곳 제이앤유아카데미

지문론 고3편

배경지식과 끊어읽기 · 본책

초판 1쇄 발행	2026년 8월 14일
지은이	정성봉
펴낸이	정성봉
펴낸곳	제이앤유아카데미
기획·편집	코드유니버스 · 한땀한땀
출판등록	356-2025-000052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
전화	010-2782-0745
전자우편	code_of_english@naver.com
ISBN	979-11-22084-33-7 (53740)

© 정성봉, 2026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앤유아카데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수록 지문은 전국연합학력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 원문입니다.

본문 서체는 Pretendard(SIL Open Font License 1.1)를 썼습니다.

목차

단원 **마흔여섯**이 부 **아홉**에 나뉘어 있다. 단원 하나가 **소재 하나**이고, 그 소재로 되풀이 출제된 기출 **두 편**이 그 안에 든다. 단원은 어디서 퍼도 **열두 면**이다.

PART 1 ·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UNIT 1	첫인상과 초두 효과 먼저 온 말과 무심한 몸짓이 첫인상을 만든다 —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11
UNIT 2	메타인지와 동기화된 추론 믿음은 사실이 아니어도 행동을 묶는다 — 벗어남은 알아챈에서 시작한다	23
UNIT 3	기억은 재구성된다 잊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기능이다 — 목격자 증언의 불안정성	35
UNIT 4	주의력이라는 한정 자원 주의는 한정된 예산이다 — 쓰면 닳고, 빠져나가는 길마다 흩어진다	47
UNIT 5	감각과 지각의 통념 허 지도는 틀렸다 — 맛은 시각과 예측이 함께 만든다	59
UNIT 6	위험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떠올리기 쉬운 것을 크게 보고, 통제할 수 있으면 덜 무섭다	71

PART 2 · 지식은 어떻게 서는가

UNIT 7	과학자의 공적 소통과 사회과학의 합의 대립하는 관점들 속에서 어떻게 공통 기반을 찾는가	83
UNIT 8	플라톤과 이성적 지식 감각은 그림자를 보고 이성이 실재를 본다 — 이데아론	95
UNIT 9	도덕과 규범의 근거 도덕은 상호 이익인가, 그것을 넘어선 존엄의 요구인가	107
UNIT 10	집단 판단 — 지혜인가 추종인가 집단지성이 되는 조건과 집단 추종이 되는 조건	119
UNIT 11	창의성은 재능이 아니다 유전자·뇌로 설명되지 않고, 생성보다 평가·선택이 나머지 절반이다	131
UNIT 12	사회적 사고와 열린 학습 고차원적 사고는 광범위한 사실 지식을 전제한다	143

PART 3 ·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UNIT 13	미학과 예술의 본질 실용적 태도에서 미학적 태도로의 전환 — 예술을 정의하려는 시도의 한계	155
----------------	--	------------

UNIT 14	독창성은 전개에서 나온다 새로움과 익숙함의 긴장 — 당대에 인정받지 못한 작품들	167
UNIT 15	문학은 무엇을 하는가 모호함을 견디게 하고 독자가 의미를 짓게 하는 장치	179
UNIT 16	영화와 재현의 철학 카메라는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인가, 구성된 액자인가	191
UNIT 17	건축과 인간 공간의 설계가 인지·감정·정체성을 만든다	203

PART 4 · 나를 움직이는 법

UNIT 18	사회가 만든 자아와 광고가 만든 욕망 의무가 가린 자아와 광고가 심은 욕망 — 내 욕망이 정말 내 것인가	215
UNIT 19	행동을 바꾸는 두 지렛대 안에서는 기존 습관이, 밖에서는 만들어 건 결과가 행동을 바꾼다	227
UNIT 20	시간은 왜 늘 모자라나 덜 하면 비효율적으로 더 오래 일하고, 걸만 바꾸면 사고는 그대로다	239
UNIT 21	양육은 누가 누구를 기르나 통제감이 아이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아이는 부모를 자라게 한다	251
UNIT 22	아이는 의도와 뜻을 어떻게 배우나 타인의 의도를 읽고 가설을 세워 뜻을 배운다 — 뜻은 공동체가 정한다	263

PART 5 · 사람을 설명하는 방식

UNIT 23	소비자를 읽는 법 알고리즘이 개인의 고유성을 구성하고, 시장은 잘게 쪼개진 취향을 쫓는다	275
UNIT 24	기술과 인간의 두 위험 사람에게 안 맞는 일을 떠넘기고, 기술 실업이 소득과 의미를 위협한다	287
UNIT 25	마케팅과 광고의 전환 원치 않는 광고는 서로에게 손해인데, 파편화 속에서도 TV는 노출에서 강하다	299
UNIT 26	소비 선택의 숨은 메커니즘 즐거움은 늦추고 고통은 한꺼번에 — 무의식이 고르고 이성엔 정당화한다	311
UNIT 27	리더십과 조직 문화 위대한 기업은 연속성과 변화의 긴장을 기르고, 리더의 판단은 회색지대를 건넌다	323
UNIT 28	관광의 탄생과 대가 교통이 관광을 만들었고, 관광이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꾼다	335

PART 6 · 사람 사이

UNIT 29	나는 남을 통해 정해진다 자존감은 집단 안에서 자기 지위를 감시하는 진화적 장치다	347
UNIT 30	디지털 연결의 두 얼굴 지워지지 않는 기록, 그리고 가상 관계가 만드는 고독	359

UNIT 31	감정은 어떻게 읽히는가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다 — 맥락과 거리	371
UNIT 32	결에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 열린 질문이 이야기를 이끌고, 군중의 무반응이 위기를 지운다	383
UNIT 33	신뢰와 불신 공연하는 가치와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	395
UNIT 34	스포츠를 보는 눈 홈 이점의 이면, 그리고 비전문가의 사후 비판	407

PART 7 · 문화와 제도

UNIT 35	문화는 무엇을 하는가 의식적 도구이자, 본인은 못 보는 무의식적 세계관의 바탕	419
UNIT 36	인간은 무엇을 전용해 왔나 외부 에너지와 기존 뇌 회로를 끌어다 복잡성을 키운다	431
UNIT 37	도시·이동성과 공공정책 불비는 곳에서 사람을 보고, 교통 정책은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으로 갈린다	443

PART 8 · 생명과 진화

UNIT 38	동물의 갈등 회피와 미묘한 소통 경고 신호·상징·불평등 인식 — 어디까지가 인간만의 것인가	455
UNIT 39	타고난 것과 배운 것 본능은 훈련의 도구가 되고, 편향은 어리석어 보여도 이유가 있다	467
UNIT 40	개인을 넘어 형성되는 지능과 정체성 유전자는 초안만 제공한다 — 그리고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479
UNIT 41	우정의 유대와 새 무리의 감정 전염 우정은 호혜의 한계를 넘는 보험이고, 무리의 구조가 감정을 전염시킨다	491
UNIT 42	미생물과 숙주의 진화 인간이 만든 환경이 그 안의 생명에게 진화 압력이 된다	503
UNIT 43	동물 행동과 반려 원치 않는 반려동물을 풀어놓지 마라 — 기대 없는 애정이 사람을 지탱한다	515
UNIT 44	음식·소화와 통념 먹기·요리·이야기가 공동체를 지탱하고, 얼마나 가공됐느냐가 몸을 가른다	527

PART 9 · 지구와 먹거리

UNIT 45	숙아내기와 되돌릴 수 있는 농업 생산 효율을 높인 획일화가 곧 취약성이 된다	539
UNIT 46	기후 위기의 재현과 생태 수용력 점진적이고 거대한 것은 왜 이야기가 되기 어려운가	551

여기 적힌 번호는 책 전체를 1 부터 센 면수다. 지면 아래에 찍힌 쪽번호는 그것과 다르다 — 단원마다 1 에서 12 까지 돌고 다시 1 로 돌아간다. 한 단원이 열두 면으로 닫히는 책이라 그렇게 매겼다. 찾을 때는 단원 번호로 찾는 것이 빠르다.

머리말

문장은 다 읽었다. 낱말도 알고 구조도 보인다. 그런데 **그 한국어가 무슨 말인지가 안 선다**. 지문 하나를 통째로 우리말로 옮겨 놓고도 「그래서 뭐라는 거지」가 남는 자리가 있다. 고3 지문에서 가장 자주 나는 자리가 여기도.

그것은 **글이 설명해 주지 않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을 몰라서 생긴다. 지문은 그 전제를 알려 주지 않는다. 알고 들어 가야 읽힌다. 그것을 배경지식 부담이라 부른다.

그러면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가. 기출의 배경지식 서술 1,899건을 이론·용어·역사·대비 여덟 갈래로 갈라 오답률을 재 보았다. **여덟 갈래가 전부 60.4%에서 61.2% 안에 들어 있었다. 최대 차이 0.8%p**. 어떤 종류의 배경지식이냐는 난 이도를 설명하지 못한다. 아느냐 모르느냐만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배경지식을 이론편·역사편·용어편으로 나누지 않는다.

기준은 하나로 잡았다 — **되풀이 나오는 것**. 기출 지문 3,622편을 뜻으로 묶어, 여러 해에 걸쳐 같은 자리에 다시 나타나는 소재 50딩이를 골랐다. 그 50딩이는 **전부 세 해 이상에 걸쳐 있다**. 우연히 한 번 나온 소재가 아니라 십 년 넘게 반복되는 고정 레퍼토리가 실제로 있다. 그 위에 46단원을 세우고, 단원마다 대표 지문 두 편을 붙였다.

지문은 **전랑 고3 학력평가·모의평가·수능 기출 원문**이고 2011년부터 2025년까지에 걸쳐 있다.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앞서 낸 『읽기의 방향』과 『빈순삽함』에 이미 실린 224편은 후보에서 뺐으므로, 그 책들을 본 학생도 같은 글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하나. 유형별 요령을 주지 않는다. 문항 풀이의 근거는 반드시 그 지문 안에 있다. 지문 밖에서 끌어온 요령으로 답을 맞히는 법은 여기 없다.

둘. 문장을 문법 용어로 해부하지 않는다. 구문 경계로 자른 조각은 틀리지는 않아도 쓸모가 없다. 학생이 못 읽는 까닭은 조각이 안 나뉘어서가 아니라 **주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다. 그래서 조각마다 문법 이름 대신 **글에서 하는 일**을 붙였다.

셋. 지문 전문을 끊어 주지 않는다. 그 단원에서 가르칠 문장만 고른다.

넷. 기출 전부를 덮지 않는다. 되풀이 나오는 소재가 기출의 43%다. 나머지 57%는 한 번 나오고 마는 소재라 가르칠 값이 없다고 보았다.

소재를 매번 바꾸면 학생은 매번 처음부터 시작한다. 한 단원 안에서는 **소재를 붙들어 두고 문장만 어려워진다**. 그것이 이 책의 유일한 장치다.

아는 소재가 늘면, 모르는 지문이 줄어든다.

지은이

두 판본이 갈리는 까닭

이 책은 **고1·2편**과 **고3편** 두 권으로 나온다. 학년으로 갈랐는데, 소재로 가른 것이 아니다. 그 까닭을 먼저 밝힌다.

소재는 학년으로 갈리지 않는다

되풀이 나오는 소재 50등이가 **하나도 빠짐없이 고1·고2·고3에 모두 나타난다**.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학년끼리 거의 같다 — 심리 35.6% · 35.5% · 32.1%, 철학 10.8% · 11.5% · 14.9%. **「고3용 배경지식」 같은 것은 없다**.

갈리는 것은 그 소재를 말하는 문장이다

같은 기출을 학년별로 재 보면 이렇다.

재어 본 것	고1	고3	차이
지문당 문장 수	8.1	8.3	거의 같다
문장당 낱말 수	19.2	21.4	+11%
구문 부하	0.436	0.482	+11%
고난도 어휘 비율	13.8%	17.4%	+26%
최상위 어휘 비율	0.56%	1.09%	거의 두 배

분량은 그대로인데 문장이 길어지고 낱말이 어려워진다. 학년 축의 정체는 이것뿐이다 — 같은 배경지식을 요구하되, 고3은 그것을 더 압축된 문장과 더 어려운 단어로 말한다. 고3 지문이 어려운 것은 내용이 새로워서가 아니다.

그래서 단원은 소재로, 판본은 학년으로

46단원의 이름도 차례도 번호도 **두 판본이 똑같다**. 다른 것은 그 자리에 놓인 지문뿐이다.

	고3편 — 이 책	고1·2편
단원	46 · 이름과 차례가 같다	46 · 같다
지문	92편 — 전부 고3	92편 — 고1 47 · 고2 45
단원 안의 계단	정답률 — 46단원 전부 A에서 B로 내려간다	학년 — 45단원이 고1(A) → 고2(B)
단원 최저 정답률	평균 41.2% (17~59)	평균 44.5% (26~61)

고3편은 두 지문이 **둘 다 고3**이라 학년 계단이 없다. 그 자리를 정답률이 대신한다 — **46단원 전부**가 A(평균 58.5%)에서 B(평균 41.2%)로 내려간다. 같은 소재를 풀리는 지문으로 먼저 만나고, 같은 소재로 무너지는 지문을 그다음에 만난다.

두 판본에 실린 지문 184편은 **한 편도 겹치지 않는다**. 고1·2편을 이미 본 학생은 같은 글을 다시 만나지 않고, **아는 소재를 더 압축된 문장으로** 다시 만난다.

이 책을 쓰는 법

어느 단원을 펴도 **같은 열두 면이 같은 차례로** 돈다. 그래서 단원을 건너뛰어 펴도 길을 잃지 않는다.

한 단원 열두 면

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1	시작면 — 이 단원이 맡은 소재와 두 지문을 견주어 보여 준다
2	배경지식 — 두 지문이 설명 없이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
3	주제 어휘망 — 그 소재의 낱말들이 서로 어떻게 얹히는가
4	지문 A 원문과 문항 — 기출 그대로 먼저 본다
5·6	지문 A 끊어읽기 — 가르칠 문장만 골라 조각마다 하는 일을 붙였다
7	지문 A 어휘 — 이 지문을 세우는 낱말
8	지문 B 원문과 문항
9·10	지문 B 끊어읽기
11	지문 B 어휘
12	다시 만나기 — 이 소재가 어느 해에 또 나왔는지 짚는다

읽는 차례

- ① 2면과 3면을 먼저 읽는다. 배경지식과 어휘망은 지문을 풀기 전에 채워 넣는 것이다.
- ② 4면(그리고 8면)의 지문을 **스스로 먼저 본다**. 끊어읽기가 뒤에 있어도 눈으로 훑치지 않는다.
- ③ 끊어읽기 면으로 되돌아와 같은 지문을 다시 읽는다. 틀렸다면 **어느 조각을 잘못 잡았는지**부터 적는다.
- ④ 12면으로 닫는다. 그 소재가 다시 나올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이 단원의 마무리다.

끊어읽기와 어휘

끊어읽기의 다섯 이름표

조각마다 문법 이름 대신 **글에서 하는 일**을 붙였다. 이름표는 다섯뿐이다. 늘리면 학생이 이름표를 외우게 된다.

이름표	그 조각이 하는 일
무엇이	이 문장의 진짜 주어. 여기만 틀리면 문장이 통째로 뒤집힌다
어떻다	본동사와 그 보충
언제 · 왜	지워도 뼈대가 남는 자리
그게 뭔데	앞말을 다시 설명하는 삽입 · 동격 · 관계절
뒤집기	논지가 꺾이는 자리. 이 책이 따로 세운 이름표다

이름표 안의 문구는 문장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섯 갈래가 다섯이라는 것만 같다**. 배경지식이 필요한 진짜 까닭은 대개 글이 통념을 뒤집기 때문이고, 학생은 뒤집는 지점을 놓쳐 정반대로 읽는다. 그래서 뒤집기를 따로 세웠다.

어휘는 두 층으로 준다

주제 어휘망은 뜻으로 주지 않고 **관계로** 준다. 그 낱말들은 대개 쉽다. 뜻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얹히는지를 몰라서 글이 안 서기 때문이다. **지문 결정 어휘**는 다르다. 그 지문의 정답률을 실제로 끌어내린 낱말만 골라 따로 준다.

두 층을 한 층으로 합치면 실패한다. 어휘망의 낱말은 뜻을 몰라서 틀리는 낱말이 아니고, 결정 어휘는 관계로 줘서 될 낱말이 아니다.

첫인상은 먼저 온 것이 지배한다.

BEFORE

인상은 **전체 정보를 공평히** 종합한 결과라 여긴다. 성향은 **말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AFTER

두 지문은 **인상이 만들어지는 기제**를 본다. **먼저 온 정보가 나머지를 몰들이고**(지문 A · 초두 효과), **비언어 단서가 성향을 새긴다**(지문 B). 인상은 **순서와 몸짓이 만든다**.

고3편 PART 1의 첫 소재 — 인상은 어떻게 형성되나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15.4 고3 학평 · 문장삽입	2015 고3 수능 · 문장삽입
정답률	59%	57%
인상 형성	순서(초두 효과)	비언어 단서
근거	Asch의 형용사 실험	Lippa의 연기 실험
열쇠 표현	primacy effect · first impression	strides · unconsciously · fake

한 쌍이다



초두 효과 — 먼저 온 것이 지배한다 (지문 A)

비언어 단서 — 몸짓이 성향을 새긴다 (지문 B)

× 통념

○ 지문이 말하는 것

공정한 종합	먼저 온 것
같은 평가	순서
말로	비언어 단서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인상은 의식하지 못한 채 형성된다.” A는 순서(초두 효과)가, B는 몸짓(비언어 단서)가 첫인상을 만든다. 우리는 그 걸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다.

먼저



두 지문이 “인상 형성”을 두 실험으로 본다

	지문 A (고3)	지문 B (고3)
실험	Asch(형용사)	Lippa(연기)
기제	순서(초두 효과)	비언어 단서
결론	먼저 온 것이 지배	무의식적으로 안다
문항 유형	문장삽입 — One explanation	문장삽입 — They also rated

이 단원의 열쇠 대비 — A의 순서 → 인상, B의 몸짓 → 성향. 둘 다 “인상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는 하나로 모인다.

A가 실험을 끝까지 따라가 결론에 이른다면, B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고전 연구로 뒷받침한다 — 같은 내용, 반대 순서.

2015.4 고3 학평 · 문장 삽입

정답률 59%

9문장 · 평균 19토큰

There is evidence that when we form impressions of others, we pay more attention to our first impressions. This tendency is called **the 'primacy effect.'** The primacy effect was documented in a famous study conducted by social psychologist Solomon Asch. Individuals were asked to evaluate two people based on two lists of adjectives. The list for the first person had the following adjectives: **intelligent**, industrious, impulsive, critical, stubborn, and envious. The list for the other person had . respondents gave the first person a more positive evaluation than the second. the first impressions we form about someone often affect our impression of **subsequent perceptions** of that person.

주어진 문장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각 목록의 첫 단어들이 첫인상을 만들었고 응답자들이 그것으로 나머지 형용사를 해석했다는 것이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리를 정하는 법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읽는다



— 실험을 세우는 문장들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20 + 21토큰 · 개념을 세운다 **주제문**

증거가 있다

There is evidence that when we form impressions of others, we **pay more attention to our first impressions.**

남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우리는 첫인상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증거가 있다.

이름을 붙인다

This tendency is called **the 'primacy effect.'** The primacy effect was **documented in a famous study** conducted by social psychologist Solomon Asch.

이 경향을 '초두 효과'라 부른다. 이는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연구로 기록되었다.

be documented in ~ “~에 기록되다 · ~로 입증되다.” **document** 동사
고 사례(애쉬 실험)로 넘어간다 초두 효과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근거로 실험을 꺼낸다.

이 문장부터 일반론이 끝나

14토큰 · 실험을 설계한다

이렇게 했다

Individuals were asked to evaluate two people based on **two lists of adjectives.**

참가자들에게 두 개의 형용사 목록으로 두 사람을 평가하라고 했다.

be asked to V ask A to V

두 목록

같은 단어를 순서만 바꾼 것

참가자가 요청받은 쪽

two lists of adjectives

형용사

거기가 이 실험의 조작 변인

이 지문은 일반 → 사례 → 사례의 설명이다

일반

사례 설계

사례 결과

설명

왜 첫 정보가 더 세게 남는가

— 결정 지점만

①②(초두 효과의 정의)는 앞쪽 「왜 맨 끝인가」에서 이미 짚었다. 여기서는 **실험이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바꿨는지부터** 본다.

24토큰 + 16토큰 · 조작 변인

무엇이

The list for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의 목록은

어떻다

had the following adjectives: **intelligent**, industrious, impulsive, critical, stubborn, and envious.

다음 형용사들을 담았다 — **지적인**, 근면한, 충동적인, 비판적인, 고집 센, 시샘하는.

뒤집기

The list for the other person had **the same adjectives, but in reverse order.**

다른 사람의 목록은 **같은 형용사, 그러나 역순**이었다.

목록의 방향



긍정 → 부정



역순이면 부정부터 시작한다.

19토큰 · 결과 **양보 구문**

뒤집기

Although the content was **identical**,

내용은 동일했지만

무엇이

respondents

응답자들은

어떻다

gave the first person a **more positive** evaluation than the second.

두 번째보다 첫 번째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A와 같은 자리

Although the content was identical

In all cases, 15 ...

둘 다 “조건은 같았다”를 못 박는 자리

25토큰 · parsing_core **0.80** — 이 지문 최고 부하

무엇이

One explanation for this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어떻다

is that **the first words** in each list **created a first impression**

각 목록의 **첫 단어**들이 **첫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게 뭔데

that respondents used **to interpret the remaining adjectives.**

(응답자들이 나머지 형용사를 해석하는 데 쓴 첫인상을).

관계절이 결론

that respondents used to interpret...

첫인상은 기억이 아니라 렌즈다.

— 고3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subsequent	7		subsequent perceptions
respondent	7		
envious	7		마지막 첫
stubborn	7		
effect	7		the primacy effect
identical	6		Although the content was identical
reverse	6		in reverse order
perception	6		subsequent perceptions
tendency	6		This tendency is called...
document	6	기록하다	was documented
evaluation	6		rate
critical	5		
intelligent	6		첫 이 글의 열쇠말
explanation	5		이 글의 열쇠말

코퍼스 미등재 — 사전 없이는 못 읽는 것

primacy 최초임·우선함 · adjective 형용사 · industrious 근면한 · impulsive 충동적인 · conduct a study 연구를 수행하다

가장 비싼 단어

두 지문을 겹쳐 보면

	지문 A (고3) · 초두 효과	지문 B (고3) · 비언어 단서
실험	Asch의 형용사 목록 (intelligent ... envious)	Lippa의 연기 실험 (내향인이 외향인 연기)
조작	같은 목록을 순서만 뒤집음 (in reverse order)	보폭·눈맞춤·발화량을 측정
결과	먼저 온 형용사가 인상을 지배	가짜 외향인도 설득력 있었다

2015 수능 고3 · 문장삽입

정답률 57%

7문장 · 평균 22토큰

Some years ago, a psychologist named Richard Lippa called a group of introverts to his lab and asked them to **act like extroverts** while pretending to teach a math class. Then he and his team, with video cameras in hand, measured the **length of their strides**, the amount of **eye contact** they made with their “students,” the percentage of time they spent talking, and the **volume of their speech**. Then Lippa did the same thing with **actual extroverts** and compared the results. He found that although the latter group **came across as more extroverted**, some of the fake extroverts were **surprisingly convincing**. It seems that **most of us know how to fake it** to some extent. Whether or not we’re aware that the length of our strides and the amount of time we spend talking and smiling **mark us as introverts and extroverts**, we **know it unconsciously**.

주어진 문장

그들은 또한 녹화된 목소리와 몸짓을 바탕으로, 그 가짜 외향인들이 얼마나 외향적으로 보이는지도 평가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리를 정하는 법

also가 measured에 덧붙는다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Lippa의 실험 설정 도입

시켰다

Lippa asked **introverts to act like extroverts** (pretending to teach a math class).

Lippa는 내향인에게 외향인처럼 연기하게 했다(수학 수업을 흉내 내며).

측정했다

His team **measured** the length of their **strides, eye contact**, talking time, and **volume of speech**.

팀은 보폭·시선·말하는 시간·목소리 크기를 측정했다.

measured — 주어진 문장의 발판

측정

"They also rated ..."

또 하나(평가)를 덧붙이

는

평가와 비교

또한 평가

They also rated how extroverted the fakes appeared (voices, body language); then compared with **actual extroverts**.

또한 가짜 외향인이 얼마나 외향적으로 보이는지 평가했고, 실제 외향인과 비교했다.

also rated → then compared — 실험의 흐름

또한 평가

비교

"also(또한)"가 받을 앞 행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다

발견

Actual extroverts **came across as more extroverted**, yet some fakes were **surprisingly convincing** — most of us **know how to fake it**.

실제 외향인이 더 외향적으로 비쳤지만, 일부 가짜는 놀랍도록 설득력 있었다 — 대부분 흉내 낼 줄 안다.

무의식적으로

Whether aware or not, strides and talking time **mark us as introverts/extroverts** — we **know it unconsciously**.

의식하든 아니든 보폭·말하는 시간이 우리를 내/외향으로 표시한다 —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다.

know it unconsciously — 결론

식 밖

“우리는 비언어 단서를 무의식적으로 읽고 낸다”

의

고3 57% — also·Then의 자리를 놓친다

한 줄로

내향인이 외향인을 연기해도 보폭·말량 같은 비언어 단서로 성향이 드러나며, 우리는 그 단서를 무의식적으로 읽고 낸다.

— 고3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extroverted	4	외향적인	extroverted
introvert	4		introverts
stride	4		strides
come across as	4	~로 비치다	came across as
convincing	5		convincing
unconsciously	4		unconsciously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act like ~ ~처럼 행동하다 · with video cameras in hand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 the amount of eye contact 시선 접촉의 양 · the percentage of time -ing ~하는 시간의 비율 · do the same thing with ~ ~로 같은 것을 하다 · come across as ~ ~로 여겨지다 · fake it 흉내 내다 · mark A as B A를 B로 특징짓다 · whether or not ~이든 아니든

지문 A와 B — 인상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지문 A (초두)	지문 B (단서)
기제	순서(먼저 온 것)	비언어 단서
실험	Asch 형용사	Lippa 연기
공통	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형성되고 전달된다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인상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지문 A · 초두 효과	지문 B · 비언어 단서
기제	순서	몸짓
실험	Asch(형용사) primacy effect	Lippa(연기) come across as
결론	먼저 온 것이 지배	무의식적으로 안다
문항 열쇠	this/One이 받는 것(삽입)	also가 덧붙는 곳(삽입)

문장삽입, 이렇게 푼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삽입(A)	지시어(this·One explanation)가 받을 앞 내용을 찾는다
삽입(B)	연결어(also·Then)의 순서 — measured 다음이 also rated

삽입은 언제나 지시어·연결어가 받을 앞 문장을 찾는 일 — 고3도 원리는 같고, 지문이 길 뿐이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순서의 말	primacy effect · first impression · reverse order · identical · evaluate
단서의 말	strides · extroverted · unconsciously · come across as · convincing · fake
숨은 뜻	come across as=~로 비치다 · stride=보폭 · primacy=최초·우선
문항의 표지	삽입=지시어·연결어가 받는 것

- ✓ 초두 효과 — 먼저 온 형용사가 인상을 지배한다(Asch)(A).
- ✓ 삽입은 지시어·연결어가 받을 앞 문장을 찾는다.
- ✓ 비언어 단서로 성향이 드러난다 —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다(Lippa)(B).
- ✓ 인상은 의식 밖에서 형성 — 순서(A)와 몸짓(B)이 만든다.

다음 단원 예고 — 고3편 UNIT 02로 이어진다. PART 1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다음 장면을 본다.

생각은 모으지 않고 버리며 작동한다.

BEFORE

우리는 정보를 공평히 모아 판단한다 여긴다. 이성엔 **편향**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AFTER

두 지문은 **사고의 한계와 편향**을 본다. 메타인지로 자기 사고를 보지만(지문 A · 양날의 검), 동기가 정보를 골라 사고를 물들인다(지문 B). 생각은 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들어가기 고3편 PART 1의 둘째 소재 — 사고의 편향

지문 A는 메타인지다 — “생각에 대한 생각”은 인간만의 능력(전전두엽)이다. 자기 사고를 사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듯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 — 실존적 물음에 사로잡히게도 한다. 지문 B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이다 — 우리는 편향 없이 생각한다 믿지만, 실은 대부분 자동조종이고, 애써 생각할 때조차 동기가 추론을 편향시킨다(Ziva Kunda). 선호하는 정보엔 주목하고 불리한 사실은 무시한다.

A는 어법, B는 문장삽입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0.7 고3 학평 · 어법	2025.3 고3 학평 · 문장삽입
정답률	57%	33%
무엇을 보나	메타인지(자기 사고)	동기화된 추론(편향)
핵심	양날의 검	동기가 정보를 고른다
열쇠 표현	metacognition · double-edged	motivated reasoning · bias · attend

한 쌍이다 A는 “자기 사고를 볼 수 있다(그러나 양날)”, B는 “동기가 사고를 편향시킨다”고 한다. 둘 다 인간 사고의 한계를 본다 — 반성할 능력이 있어도(A), 동기가 정보를 골라(B) 편향된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메타인지 — 양날의 검 (지문 A)

“생각에 대한 생각(metacognition)”은 인간을 다른 종과 가르는 능력이다.

전전두엽 덕에 자기 사고를 내려다보며 평가 가능

침팬지조차 이 능력이 없다(거울 자기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양날의 검 — 실존적 물음에 사로잡히게도

자기 사고를 객관화하는 힘은 축복이자 부담이다 — 이 능력이 편향을 알아챌 토대이면서 동시에 강박의 씨앗이 된다.

개념 2 동기화된 추론 — 편향은 숨는다 (지문 B)

우리는 편향 없이 생각한다 믿지만, 그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 자동조종 — 숙고 없이 행동

애써 생각할 때조차 동기가 추론을 편향시킴(Ziva Kunda)

선호 정보엔 주목, 불리한 사실은 무시

이것이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 — 증거를 보고 양쪽을 살핀다 해도, 자기도 모르는 동기가 결론을 물들인다.

×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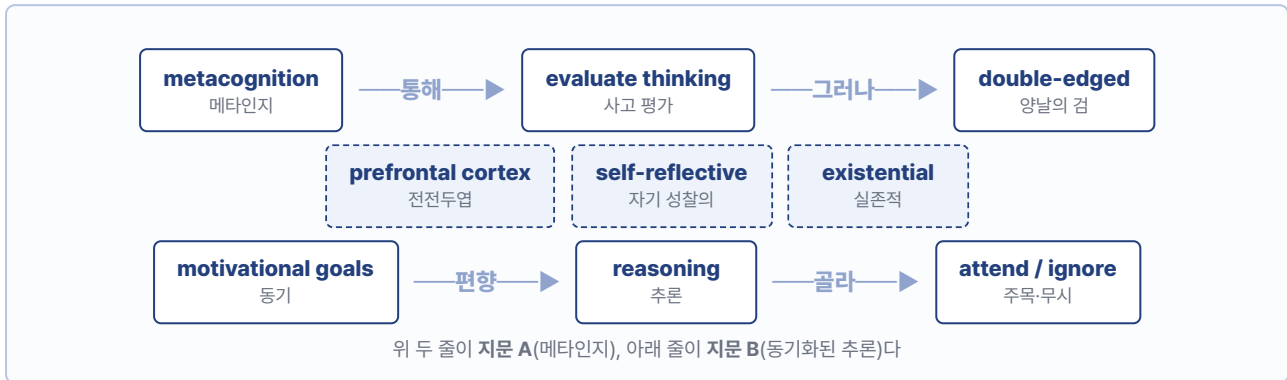
○ 지문이 말하는 것

인간은 편향 없이 판단	동기가 사고를 물들임 (B)
이성이면 충분	대부분 자동조종 (B)
자기 성찰은 순전한 축복	양날의 검이다 (A)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인간 사고에는 한계가 있다.” A는 메타인지가 자기 사고를 볼 힘(양날), B는 동기가 정보를 골라 편향시킴을 본다.

1 · 주제 어휘망 — 성찰의 말과 편향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성찰**의 말(metacognition · self-reflective · evaluate)과 **편향**의 말(motivated reasoning · bias · attend). 둘 다 **“사고의 한계”**다.



두 지문이 “사고의 한계”를 두 각도로 본다

	지문 A (고3)	지문 B (고3)
주제	메타인지	동기화된 추론
성격	양날의 검	편향은 숨는다
기제	자기 사고를 봄	동기가 정보 선별
문항 유형	어법 — 밑줄 5곳	문장삽입 — The rest of the time

이 단원의 열쇠 대비 — A의 성찰 ↔ 강박, B의 동기 → 편향. 둘 다 “사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하나로 모인다.

2 · 지문 A — 생각에 대한 생각

2020.7 고3 학평 · 어법

정답률 57%

6문장 · 평균 27토큰

Metacognition simply means “thinking about thinking,” and it is one of the main distinctions between the human brain and that of other species. Our ability to **stand high on a ladder above our normal thinking processes** and ㉠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as we are thinking is an evolutionary marvel. We have this ability ㉡ **because** the most recently developed part of the human brain — the **prefrontal cortex** — enables self-reflective, abstract thought. We can think about ourselves as if we are **not part of** ㉢ **ourselves**. Research on primate behavior indicates that even our closest cousins, the chimpanzees, ㉣ **lacking** this ability (although they possess some self-reflective abilities, like being able to identify themselves in a mirror instead of thinking the reflection is another chimp). The ability is a **double-edged sword**, because while it allows us to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 **what** we are thinking, it also puts us in touch with difficult **existential questions** that can easily become obsessions.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어법을 정하는 법 ㉣가 든 문장의 주어는 “the chimpanzees”인데 본동사가 없다. **lacking**(분사)으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본동사 **lack**이 와야 한다(chimpanzees **lack** this ability). 정답 ④.

왜 ㉣인가 주어에 본동사가 없다주어 — Research ... indicates that ... the **chimpanzees**필요 — that절의 **본동사**(chimpanzees가 주어)㉣ lacking — 분사라 **본동사가 될 수 없다** → lack바로잡기 — the chimpanzees **lack** this ability

규칙 하나 — 긴 삽입구 뒤 주어엔 **본동사가 있는지** 본다. ㉠ evaluate(병렬)·㉡ because·㉢ ourselves(재귀)·㉤ what(명사절)은 모두 정상이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② ③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정의

뜻한다

Metacognition means **“thinking about thinking”** — a main distinction of the human brain.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 — 인간 뇌의 주요 구별점이다.

능력

Our ability to **stand above our thinking and evaluate it** is an evolutionary marvel — thanks to the **prefrontal cortex**.

사고 위에 서서 평가하는 능력은 진화의 경이 — 전전두엽 덕분이다.

ability to ... evaluate — ③의 병렬 **stand**와 **evaluate**가 **and**로 병렬된 to부정사다(ability to stand ... and evaluate). 그래서 ③ evaluate는 정상 — 어법의 함정이 아니다.

④ ⑤ 인간만의 능력 d 자리

침팬지조차

Even chimpanzees **lack**(④ **lacking**→**lack**) this ability (though they recognize themselves in a mirror).

침팬지조차 이 능력이 없다(거울 속 자신은 알아보지만).

the chimpanzees + 본동사 that절의 주어 **the chimpanzees**에는 **본동사**가 필요하다 — **lack**. 여기에 **lacking**을 쓰면 문장이 무너진다(④가 오답).

⑥ 양날의 검 **결론****그러나**

The ability is a **double-edged sword**: it lets us evaluate our thinking, but also puts us in touch with **existential questions** that can become **obsessions**.

이 능력은 양날의 검 — 사고를 평가하게 하지만, 실존적 물음과 맞닿아 강박이 되기도 한다.

double-edged sword — 균형 잡힌 결론

메타인지는 **축복이자 부담**이다. 자기 사고를 볼 힘이 **강박**도 낳는다는 반전 — 고3 지문답게 **양가성**으로 맺는다.

정체 고3 57% — 준동사에 속는다

긴 삽입구(although ...)에 시선이 팔려 **본동사 부재**를 놓침

㉠ evaluate — **and**로 stand와 병렬(정상)

㉡ lacking — that절의 **유일한 본동사 자리**인데 분사(오류)

규칙 하나 — 어법은 “**이 절의 본동사는?**”을 먼저 찾는다. 긴 문장일수록 **-ing가 본동사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면 ㉠이 보인다.

한 줄로

메타인지는 자기 사고를 내려다보는 인간만의 능력이지만, 실존적 강박도 낳는 양날의 검이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성찰·인지**의 말이 축이다 — **metacognition · self-reflective · double-edged**. 어법은 **본동사 자리(lack)**가 핵심이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metacognition	3	메타인지	① “thinking about thinking” — 이 글의 주어
distinction	6	구별, 차이	① a main distinction 주요 구별점
self-reflective	4	자기 성찰의	③⑥ self-reflective thought 자기 성찰적 사고
prefrontal cortex	3	전전두엽	③ the prefrontal cortex enables ~ 능력의 토대
double-edged	4	양날의	⑥ a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
existential	4	실존의	⑥ existential questions 실존적 물음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thinking about thinking 생각에 대한 생각 · **a distinction between A and that of B** A와 B의 것 사이 차이 · **stand above** ~ ~ 위에 서다 · **as if** 주어 **were/are** 마치 ~인 듯 · **even our closest cousins** 가장 가까운 사촌조차 · **put A in touch with B** A를 B와 맞닿게 하다 · **a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

합정 어법 = 절마다 “본동사” 하나

고3 어법은 문장이 길어 **준동사(-ing/-ed/to)**와 **본동사**를 헷갈리게 한다.

절의 주어를 찾고 → 그 절의 **본동사**가 있는지 확인

본동사 자리에 **-ing(lacking)**이면 오류 → lack

긴 삽입구(although ..., like ...)는 **본동사가 아니다** — 괄호로 지우고 **빠대(주어+본동사)**만 보면 ④의 오류가 드러난다.

3 · 지문 B — 편향은 어떻게 숨는가

A가 편향을 다루는 절차였다면, B는 편향이 애설 때조차 작동한다는 이야기다 — A의 전제("못 없앤다")가 왜 그런지를 설명한다.

2025.3 고3 학평 · 문장 삽입

정답률 33%

9문장 · 평균 25토큰

Everyone likes to think of themselves as behaving in an **unbiased** fashion most of the time. We all view ourselves similar to the blindfolded statue of Lady Justice evaluating competing claims without bias, emotions, or motivations. ㉠ **And yet**, overwhelming psychological research suggests that such unbiased rationality is actually a fairly **elusive** quality in humans. ㉡ **Much of the time** people are on **automatic pilot**. ㉢ **The rest of the time**, even as individuals are trying their best to think through issues, motivational goals may bias their thought processes and bias their reasoning. ㉣ Ziva Kunda, who coined the term "**motivated reasoning**" to describe this phenomenon, explained that although individuals try to make well-thought-out decisions, use available evidence, and look at both sides of an issue, the process is often **tainted** by motivations that may be unknown to them. Individuals' motivations may direct them to attend more carefully to some information while ignoring other relevant facts. ㉤ Or they may use different strategies to evaluate information they prefer to be correct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hypercritical** of flaws in information they prefer to be wrong.

* elusive: 찾기 어려운 ** taint: 오염시키다

주어진 문장 In other words, individuals are acting without reflection more often than they are thinking carefully and deliberately.

다시 말해, 개인은 신중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기'보다 심사숙고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리를 정하는 법 대구가 벌어진 틈을 찾는다

Much of the time ... / The rest of the time ... — 이 둘은 한 쌍이다. "대부분은 이렇고, 나머지는 저렇다".

주어진 문장의 **In other words**는 바로 앞 문장을 바꿔 말하는 신호다. 그러니 앞 짝(**Much of the time**)에 딱 붙어야 한다. 뒤 짝(**The rest of the time**) 앞에 끼어드는 것이다.

Much of the time people are on **automatic pilot**. ← 어려운 비유

→ = **In other words**, acting **without reflection** ... ← 쉬운 말로 풀어줌 (주어진 문장)

→ **The rest of the time**, ... ← 짝의 나머지 반

automatic pilot(자동 조종)이 비유라서 한 번 풀어줘야 했던 것이다. 비유 뒤에는 그것을 풀어 말하는 문장이 온다 — 삽입 문항의 단골 자리다.

복원 근거 원 문항의 ㉠㉡㉣ 위치는 자료에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정답이 ㉢ ㉤이고, 주어진 문장을 빼면 **Much of the time ... The rest of the time ...**이 정확히 맞물리므로 자리는 위와 같이 **확정된다**. 나머지 표시는 임의로 찍지 않았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①② 17토큰 + 23토큰 · 통념 세우기

무엇이

Everyone

모든 사람은

어떻다

likes to think of themselves as behaving in an **unbiased** fashion most of the time.자신이 대개 **편향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어떻다

We all view ourselves similar to **the blindfolded statue of Lady Justice**우리 모두 자신을 눈가리개를 한 **정의의 여신상**과 비슷하다고 여긴다

그게 원데

evaluating competing claims **without bias, emotions, or motivations**.(상충하는 주장을 **편향·감정·동기 없이** 평가하는 여신상.)

통념 likes to think와 view ourselves as — 둘 다 “그렇게 여긴다”지 “그렇다”가 아니다. 화자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 “사람은 객관적이다”로 읽으면 ㉠에서 뒤집힐 때 따라가지 못한다.

③ 20토큰 · 뒤집는 자리 **주제문**

뒤집기

And yet,

그러나

무엇이

overwhelming psychological research

압도적으로 많은 심리학 연구가

어떻다

suggests that such **unbiased rationality** is actually a fairly **elusive** quality in humans.그런 **편향 없는 합리성**이 실은 인간에게 상당히 **붙잡기 어려운** 특성임을 보여준다.

두 겹 And yet 하나로 통념이 뒤집힌다. 그리고 overwhelming(압도적인)이 “한두 연구가 아니다”를 못 박는다. 통념 대 연구의 대결에서 연구 쪽에 무게를 실어 주는 단어다. 흘리면 안 된다.

①②③이 이 글의 뼈대다. ①② 통념 → ③ 반박. 나머지 여섯 문장은 전부 ③을 어떻게 그런지 풀어 쓴 것이다.

신호 통념을 세우는 말은 정해져 있다

지문이 통념 → 반박으로 갈 때, 통념 쪽 문장에는 거리를 두는 표시가 붙는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여긴다”로 쓰는 것이다.

B

likes to think of themselves as ~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B

view ourselves similar to ~ ~와 비슷하다고 여긴다

다른 지문에서

are supposed to · supposedly · it is often assumed that · we tend to believe

이 표시가 보이면 뒤에 반박이 온다고 예약해 둔다. 여기서는 And yet이 세 문장 만에 왔다. 표시를 못 보면 반박을 만나도 “그래서 뭐?”가 된다.

④⑤⑥ 10 + 19 + 30토큰 · 대구와 그 사이

얼마나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어떻다	people are on automatic pilot . 사람들은 자동 조종 상태다.
= 바꿔 말하면	In other words , individuals are acting without reflection more often than they are thinking carefully and deliberately. 즉 심사숙고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신중히 생각하는 경우보다 많다. ← 주어진 문장
얼마나	The rest of the time , 나머지 경우에는
뒤집기	even as individuals are trying their best to think through issues, 애써 문제를 끝까지 생각하려 할 때조차
어떻다	motivational goals may bias their thought processes and bias their reasoning. 동기가 된 목표가 사고 과정과 추론을 편향 시킬 수 있다.

여기가 핵심 **even as**(~할 때조차)가 이 글의 결정적 한 방이다. **게을러서 편향되는 게 아니다**. 자동 조종일 때도(㉠), **최선을 다할 때**도(㉡) 편향된다. 그래서 지문 A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⑦ 57토큰 · parsing_core 0.82 — 이 단원 최장 문장 이름 붙이기

무엇이	Ziva Kunda , Ziva Kunda가
그게 누군데	who coined the term “ motivated reasoning ” to describe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 동기화된 추론 ’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인데,)
어떻다	explained that라고 설명했다
뒤집기	although individuals try to make well-thought-out decisions, use available evidence, and look at both sides of an issue, 개인이 충분히 검토한 결정을 내리고, 쓸 만한 증거를 쓰고, 문제의 양면을 보려 애쓰지만
무엇이	the process 그 과정은
어떻다	is often tainted by motivations that may be unknown to them . 종종 자신도 모르는 동기에 의해 오염된다.

57토큰을 세 조각으로 주어(Ziva Kunda) — 삽입절(who ...) — 동사(explained)까지가 겨우 앞머리다. 진짜 내용은 **that** 뒤에 있고, 그 안에 또 **although** 양보절이 들어 있다. [누가] [뭐라고 했는데] [비록 ~지만] [사실은 ~다] 네 칸으로 나눠 읽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③③ 19 + 31토콘 · 두 가지 방식

방식 1

Individuals' motivations may **direct them to attend more carefully** to some information **while ignoring** other relevant facts.

동기가 어떤 정보에는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다른 관련 사실은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

방식 2

Or they may use different strategies to evaluate information **they prefer to be correct**

또는 옳았으면 하는 정보를 평가할 때 다른 잣대를 쓴다

동시에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hypercritical** of flaws in information **they prefer to be wrong**.

동시에 틀렸으면 하는 정보의 결함에는 지나치게 비판적이면서.

잣대가 틀 **prefer to be correct** ↔ **prefer to be wrong** — 같은 사람이 두 개의 잣대를 쓴다. 그러면서 양면을 다 봤다고 믿는다 (㉠). 이게 동기화된 추론의 정확한 모양이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elusive	8	불잡기 어려운	③ — 주제문의 술어. 이 단어가 통념을 부순다
flaw	8	결함	㉠ — 틀렸으면 하는 정보에서 집요하게 찾는 것
overwhelming	6	압도적인	③ — 연구 쪽에 무게를 실는 말
reasoning	6	추론	motivated reasoning — 이 단원의 이름
motivation	6	동기	4회. 편향을 움직이는 힘
reflection	6	심사숙고	‘반사·반영’이 아니다. without reflection 생각 없이
relevant	6	관련 있는	㉠ — 무시되는 쪽도 관련 있는 사실이다
claim	5	주장 (명사)	‘요구·청구’가 아니다. ㉡ competing claims 상충하는 주장
term	5	용어	‘기간’이 아니다. ㉢ coined the term 용어를 만들었다
phenomenon	5	현상	㉣ — 이름을 붙일 대상
prefer	5	선호하다	㉤ 2회 — 바라는 결론 을 가리킨다
strategy	5	전략	㉥ — 편향이 쓰는 전략

코퍼스 미등재 — 사전 없이는 못 읽는 것

unbiased 편향 없는 · **motivated** 동기화된 · **hypercritical** 지나치게 비판적인 · **taint** 오염시키다 · **blindfolded** 눈가리개를 한 · **deliberately** 신중히 · **rationality** 합리성

가장 비싼 단어 **elusive**(랭크 8)가 이 지문에서 가장 비싸다. **주제문의 술어**이기 때문이다. “편향 없는 합리성은 **elusive**하다” — 이 한 단어가 ㉠㉡의 통념을 통째로 부순다. 모르면 ㉢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글 전체가 “사람은 객관적이다”로 읽힌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인간 사고에는 한계가 있다

	지문 A · 메타인지	지문 B · 동기화된 추론
주제	자기 사고를 봄	동기가 편향
성격	양날의 검 double-edged	편향은 숨는다 motivated reasoning
한계	강박이 되기도	정보를 골라 무시
문항 열쇠	본동사 자리(어법)	대비의 연결(삽입)

A는 “자기 사고를 볼 수 있다(양날)”, B는 “동기가 사고를 편향시킨다”고 한다. 둘 다 인간 사고의 한계를 본다 — 반성할 능력이 있어도(A), 동기가 정보를 골라(B) 우리는 편향된다. 생각은 모르는 게 아니라 버리며 작동한다.

근거 어법·문장삽입, 이렇게 푼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어법(A)	절마다 본동사 하나 — chimpanzees lack (lacking 오류)
문장삽입(B)	대비 연결어 — Much of the time ↔ The rest of the time

어법은 “본동사 자리”, 삽입은 “대비의 연결”. 고3도 원리는 같고 지문이 길 뿐이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성찰의 말	metacognition · self-reflective · double-edged · distinction · existential
편향의 말	motivated reasoning · bias · attend · automatic pilot · deliberately · elusive
숨은 뜻	double-edged=양날의 · elusive=포착 어려운 · attend to=주목하다
문항의 표지	어법=본동사 자리 · 삽입=대비 연결

- ✓ 메타인지는 인간만의 능력이나 강박도 낳는 양날의 검(A).
- ✓ 어법은 절의 본동사 — chimpanzees lack(lacking 오류).
- ✓ 동기화된 추론 — 자기도 모르는 동기가 정보를 골라 편향(B).
- ✓ 생각은 버리며 작동 — 반성 능력이 있어도 편향된다.

다음 단원 예고 — 고3편 UNIT 03으로 이어진다. PART 1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다음 장면을 본다.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BEFORE

기억은 있는 그대로 저장된다 여긴다. 떠올리면 그때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AFTER

두 지문은 저장 은유의 허구를 본다. 기억을 시대의 기술에 비유해 왔지만(지문 A · 저장), 실제 기억은 왜곡되어 여론까지 만든다(지문 B). 기억은 재구성된다.

들어가기 고3편 PART 1의 셋째 소재 — 기억의 본질

지문 A는 기억의 은유다 — 밀랍 서자판 → 도서관 → 비디오카메라 → 컴퓨터로, 우리는 기억을 시대의 기술에 비유해 왔다. 공통점은 “모든 것이 저장된다”는 믿음이다. 지문 B는 기억의 왜곡이다 — 기억은 특이하고 생생한 것만 남기고 자기 위주로 왜곡된다. 그 왜곡된 기억이 뉴스에 대한 반응, 나아가 여론(의제 설정·프레이밍)까지 좌우한다.

A는 요약문[3점], B는 문장삽입[3점] — 둘 다 고난도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14.10 고3 학평 · 요약문[3점]	2024.10 고3 학평 · 문장삽입[3점]
정답률	58%	41%
기억을 보는 눈	저장 은유(기술)	왜곡·재구성
함의	모든 게 저장된다는 믿음	왜곡이 여론을 만든다
열쇠 표현	compared to · retrieval · saved	self-serving bias · distort · framing

한 쌍이다 A는 “기억을 저장 기술에 비유해 왔다”, B는 “실제 기억은 왜곡된다”고 한다. 둘 다 기억은 있는 그대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말 — 통념(저장)과 실제(재구성)의 대비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기억의 은유 — 시대의 기술 (지문 A)

우리는 기억을 늘 “그 시대의 최신 기술”에 비유해 왔다.

고대 — 밀랍 서자판(새긴 것을 보존)

인쇄술 — 도서관(저장·인출) / 영화·녹음기 — 비디오카메라

오늘날 — 컴퓨터(모든 것이 “저장”됨)

은유는 바뀌었지만 공통 믿음은 “저장” — 뇌가 다 보여 주진 않아도 어딘가 남아 인출을 기다린다고 여긴다. 이 믿음이 지문 B에서 뒤집힌다.

개념 2 기억의 왜곡 — 여론을 만든다 (지문 B)

실제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이며 왜곡된다.

특이하고 생생한 것만 쉽게 떠오름(Mlodinow)

자기 위주 편향으로 계속 왜곡됨(Trivers)

여러 인지 편향이 저장·인출을 왜곡한다

문제는 이 왜곡이 뉴스 반응을 좌우한다는 것 — 기억이 틀리면, 의제 설정·프레이밍은 원래 뉴스가 아니라 “왜곡된 기억”이 만든다.

×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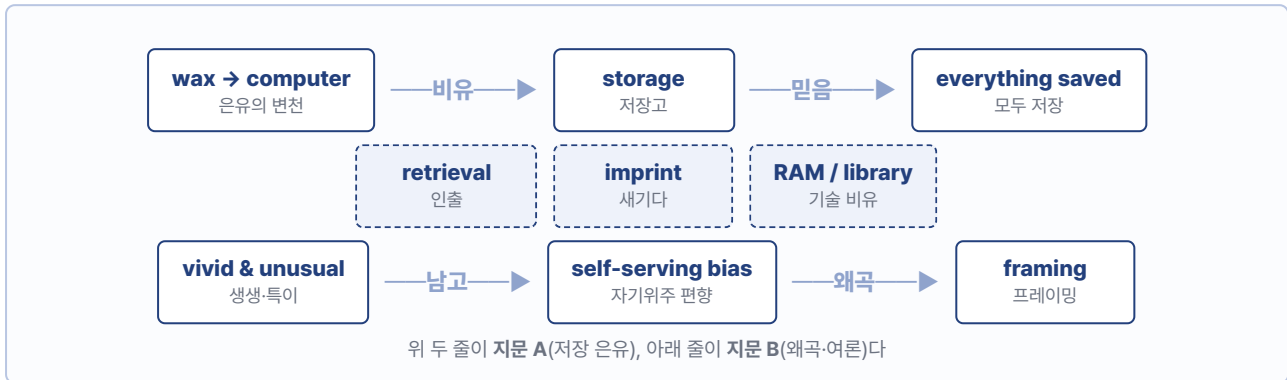
○ 지문이 말하는 것

기억은 그대로 저장	시대 기술에 비유일 뿐 (A)
떠올리면 정확하다	왜곡·재구성된다 (B)
여론은 뉴스가 만든다	왜곡된 기억이 만든다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기억은 있는 그대로 저장되지 않는다.” A는 저장 은유의 변천을, B는 실제 왜곡과 그 사회적 파장을 본다. 통념(저장) vs 실제(재구성).

1 · 주제 어휘망 — 저장의 말과 왜곡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저장·인출**의 말(retrieval · saved · imprint)과 **왜곡·편향**의 말(self-serving bias · distort · framing). 둘 다 **“기억의 본질”**이다.



두 지문이 “기억”을 통념과 실제로 본다

	지문 A (고3)	지문 B (고3)
기억이란	저장고(은유)	재구성·왜곡
근거	은유의 역사	편향 연구
파장	“모두 저장” 믿음	여론·프레이밍
문항 유형	요약문[3점] — compared to/technology	문장삽입[3점] — But what if

이 단원의 열쇠 대비 — A의 저장 은유, B의 왜곡·재구성. 둘 다 “기억은 그대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하나로 모인다.

2 · 지문 A — 기억을 무엇에 비유해 왔나

2014.10 고3 학평 · 요약문 [3점]

정답률 58%

5문장 · 평균 30토큰

Centuries ago, philosophers regarded memory as a **soft wax tablet** that would preserve anything imprinted on it. With the advent of the printing press, people began to think of memory as a **library** that stores events and facts for later retrieval. (Those of us of a certain age still think of it that way, muttering about where we “filed” information in our mental cabinets.) With the inventions of movies and tape recorders, people started thinking of memory as a **video camera**, clicking on at the moment of birth and automatically recording every moment thereafter. Nowadays we think of memory in **computer terms**, and although some of us wish for more RAM, we assume that **just about everything that happens to us is “saved.”** Your brain might not choose to screen all those memories, but they are **in there, just waiting for you to retrieve them.**

* wax tablet: 밀랍을 칠한 서자판(書字板)

요약문 Memory has been (A) the objects that reflect our times and (B).

① enhanced by ... philosophy

② compared to ... language

③ cherished by ... language

요약문 원문은

DB에 남아 있지

않아 뜻이 통하도

록 복원했다. 선택

지와 정답은 원문

그대로다.

④ compared to ... technology

⑤ enhanced by ... technology

요약을 정하는 법 글은 밀랍→도서관→비디오→컴퓨터로, 시대마다 기억을 **당대의 사물(기술)에 견주어** 왔다. (A) 견주다 = **compared to**, (B) 그 사물들은 **기술(technology)**. 정답 ④.

왜 ④인가 은유의 나열이 요약을 정한다wax tablet · library · video camera · computer — 모두 **당대의 기술**기억을 그것들에 **견주어(비유)** 왔다 → (A) compared to그 사물들의 공통 범주 = **technology** → (B) technology

규칙 하나 — 요약문의 두 칸은 **본문의 “반복 구조”**가 정한다. “기억 = ~에 비유”가 네 번 반복되고, 그 ~가 전부 기술이다 — enhanced by·language는 근거 없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②③ 은유의 변천 — 밀랍에서 비디오까지 **나열**

비유1·2

Memory as a **wax tablet**(preserve imprint) → with printing, as a **library**(store & retrieve).

기억 = 밀랍 서자판(새긴 것 보존) → 인쇄술 이후 도서관(저장·인출).

비유3

With movies/recorders, memory as a **video camera**, recording every moment from birth.

영화·녹음기 이후 비디오카메라 — 출생부터 모든 순간을 녹화.

as a ~ 반복 — 요약의 뼈대

as a wax tablet / library / video camera로 “기억 = ~”가 반복된다. 이 반복이 요약문 (A) compared to의 근거다 — 시대마다 **당대 사물**에 견췄다.

④⑤ 오늘날 — 컴퓨터 **현재**

비유4

Nowadays, memory in **computer terms** — everything is “**saved**,” waiting to be **retrieved**.

오늘날 컴퓨터로 — 모든 것이 “저장”돼 인출을 기다린다고 여긴다.

computer terms — 최신 은유, 같은 믿음

비유의 최신판이 컴퓨터다. 밀랍→컴퓨터로 도구는 바뀌어도 “다 저장된다”는 믿음은 같다 — (B) technology를 확정한다.

요약 두 칸을 채운다 **교차****(A)(B)**Memory has been **(A)compared to** the objects that reflect our times and **(B)technology**.기억은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사물, 즉 **기술**에 비유되어 왔다.**objects that reflect our times = technology**요약문의 “시대를 반영하는 사물”이 곧 각 시대의 **기술**(밀랍·인쇄·영화·컴퓨터)이다. 본문 나열 → 요약 두 칸으로 압축된다.**정제** 고3 58%[3점] — **(A)·(B) 교차에서 같린다**(A) enhanced by(향상) — 글은 기억을 **비유**할 뿐, 향상시킨 게 아님 ×(B) philosophy·language — 나열된 건 **사물(기술)**이지 언어·철학이 아님 ×

compared to + technology — 반복 구조가 둘 다 확정 = 정답 ④

규칙 하나 — 요약문은 **(A)·(B)**를 따로 확인하고 **교차**한다. 한 칸만 맞는 오답(②language·⑤enhanced)에 낚이지 않는다.**한 줄로**

밀랍 서자판에서 컴퓨터까지, 사람들은 기억을 늘 당대의 기술에 비유해 왔다 — 공통 믿음은 “다 저장된다”이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저장·비유**의 말이 축이다 — **retrieval · imprint · compared to**. 요약문은 **은유의 반복 구조**가 정한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retrieval	5	인출, 회수	㉔ for later retrieval / retrieve them 저장→인출
imprint	4	새기다, 각인	㉑ anything imprinted on it 새겨진 것
compare to	6	~에 비유하다	요약 (A) compared to — 정답 열쇠
advent	4	출현, 도래	㉔ the advent of the printing press 인쇄술의 출현
regard A as B	6	A를 B로 여기다	㉑ regarded memory as a wax tablet 기억을 ~로 여김
screen	5	가려내다, 보여주다	㉔ not choose to screen all memories 다 보여주진 않음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 **with the advent of ~** ~의 출현과 함께 · **store ... for later retrieval** 나중 인출 위해 저장 · **of a certain age** 어느 정도 나이 든 · **think of A in ~ terms** A를 ~의 관점으로 보다 · **wish for more RAM** 더 많은 RAM을 바라다 · **the objects that reflect our times** 시대를 반영하는 사물

함정 요약문 = 두 칸을 “따로” 검증

요약문은 (A)·(B) 중 **한 칸만 맞는 오답**이 꼭 있다 — 반드시 **둘 다** 확인한다.

(A) — 글은 기억을 “비유(**compared to**)”할 뿐, enhanced/cherished 아님

(B) — 나열된 밀랍·컴퓨터는 **technology**, language/philosophy 아님

㉔(compared to + language)와 ㉔(enhanced + technology)처럼 **한 칸만 맞는** 미끼를 피하고, **둘 다 맞는 ㉔**을 고른다.

3 · 지문 B —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A가 기억의 원리였다면, B는 그 원리가 **여론까지 만든다**는 이야기다. A의 첫 문장을 B는 **인용**으로 다시 꺼낸다.

2024.10 고3 학평 · 문장 삽입 [3점]

정답률 41%

7문장 · 평균 29토큰

Memory often plays tricks. ㉠ According to Mlodinow, we give "unwarranted importance to memories that are the most vivid and hence most available for retrieval — our memory makes it easy to remember the events that are **unusual and striking** not the many events that are **normal and dull**." ㉡ The **self-serving bias** works because, as Trivers observes, "There are also many processes of memory that can be biased to produce welcome results. Memories are continually distorting in self-serving ways." ㉢ A recent study argues that several forms of **cognitive bias** cause **distortions** in storing and retrieving memories. ㉣ This, **in turn**, has a bearing on theories of **agenda setting, priming, and framing**, which argue that how people respond to the news is strongly influenced by what is most easily and readily accessible from their memories. **But what if** memories about news stories are **faulty** and distort, forget, or invent what was actually reported? ㉤

* retrieval: 불러오기

주어진 문장 In such cases, it may be the manipulation of memories in individual minds that primes, frames, and sets the agenda, not the original news stories.

그런 경우, 의제를 점화하고 구성하고 설정하는 것은 원래의 뉴스 기사가 아니라 개인의 머릿속 기억의 조작일 수 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리를 정하는 법 질문 뒤에는 답이 온다

주어진 문장의 **In such cases**(그런 경우) — “그런 경우”가 앞에 이미 제시돼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앞 문장이 **But what if ...?** — 가정을 던지는 질문이다.

But what if memories ... are faulty and distort, forget, or invent ...? ← 가정을 던진다

→ **In such cases**, it may be the manipulation of memories ... **not the original news stories**. ← 그 가정에 답한다 (주어진 문장)

수사의문문 뒤에는 그 답이 온다. 삽입 문항에서 가장 확실한 자리 중 하나다. 게다가 **primes, frames, and sets the agenda**가 앞 문장의 **agenda setting, priming, and framing**을 동사로 바꿔 되받는다.

자리를 정하는 법 주어진 문장의 **In such cases**(그런 경우에는)는 “그런 경우”가 앞에 제시돼 있어야 쓴다. 바로 앞 ㉣ 자리의 **But what if ... faulty and distort, forget, or invent**가 그 가정이다. 가정 → 그렇다면 — 그래서 정답 ㉤ ㉤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①② 5토큰 + 48토큰 · parsing_core 0.93 · 인용 1

선언

Memory often plays tricks.

기억은 흔히 속임수를 쓴다.

누구에 따르면

According to Mlodinow,

Mlodinow에 따르면

어떻다

we give "unwarranted importance" to memories

우리는 기억에 부당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어떤 기억

that are the most vivid and hence most available for retrieval

가장 생생하고 따라서 꺼내기 쉬운 기억에

즉

— our memory makes it easy to remember the events that are **unusual and striking**, not the many events that are **normal and dull**.

우리 기억은 평범하고 밋밋한 많은 사건이 아니라 색다르고 인상적인 사건을 쉽게 기억하게 만든다.

지문 A가 여기 있다 unusual and striking ↔ normal and dull — 이건 지문 A의 첫 문장 (out of ordinary ... remembered better)과 같은 명제다. A는 이걸 설명했고, B는 인용해 전제로 깬다. A를 읽었으면 ③는 새 정보가 아니다.

③④ 40 + 18토큰 · 인용 2와 요약

무엇이

The **self-serving bias** works

자기 잇속 편향이 작동한다

왜

because, as Trivers observes, "... many processes of memory that can be **biased to produce welcome results**. Memories are continually **distorting in self-serving ways**."

Trivers의 말대로 반길 만한 결과를 내도록 편향될 수 있는 기억 과정이 많고, 기억은 계속 자기 잇속대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A recent study

최근 한 연구는

어떻다

argues that several forms of cognitive bias cause **distortions** in **storing and retrieving** memories.

여러 인지 편향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데 왜곡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인용 둘의 역할 Mlodinow(②)와 Trivers(③)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둘 다 ①의 근거다. ④가 그 둘을 한 문장으로 묶는다 — 인지 편향이 저장·인출 양쪽을 왜곡한다. 인용이 길다고 겁먹지 말고, 그것을 받는 요약 문장을 찾는다.

요령 인용이 긴 지문은 이렇게 읽는다

이 지문은 7문장 중 2문장이 인용이고, 그 둘이 분량의 절반(88토큰)이다.

1 따옴표 밖을 먼저 읽는다 — According to X / as Y observes / A recent study argues that

2 인용은 근거다. 주장은 그것을 받는 문장에 있다(④)

3 인용끼리 싸우는지 같은 편인지만 확인한다 — 여기서는 둘 다 같은 편(①의 근거)

인용이 서로 반대일 때만 안을 자세히 본다 — 그때는 대개 however가 인용 사이에 끼어 있다.

⑤ 43토큰 · 미디어 이론으로 건너가기

무엇이

This, in turn,
이것(= 기억의 왜곡)은, 결국,

어떻다

has **a bearing on** theories of **agenda setting, priming, and framing**,
의제 설정 · 점화 · 프레임 이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뭔데

which argue that how people respond to the news is strongly influenced by **what is most easily and readily accessible from their memories**.

(그 이론들은 사람들이 뉴스에 반응하는 방식이 기억에서 가장 쉽게 꺼내지는 것에 크게 좌우된다고 본다.)

이 문장이 다리다 This는 앞 문장의 **distortions**를 받는다. 그리고 **has a bearing on** (~에 영향을 미치다)이 **기억 이야기를 미디어 이론으로 건너다**. 여기서 **소재가 바뀐다** — 이 다리를 못 보면 뒤가 땀 글로 보인다.

관계절 **which argue that ...**이 세 이론의 **공동 전제**를 알려준다 — “기억에서 잘 꺼내지는 것이 반응을 좌우한다.” 이게 ㉔에서 공격 당한다.

⑥ ㉔ 21 + 30토큰 · 가정과 답 **삽입 자리**

뒤집기

But what if memories about news stories are **faulty** and **distort, forget, or invent** what was actually reported?

그런데 만약 뉴스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해서 실제 보도된 것을 왜곡·누락·날조한다면?

그 경우

In such cases,
그런 경우에는 ← 주어진 문장 시작

무엇이

it may be **the manipulation of memories in individual minds**

개인의 머릿속 기억의 조작일 수 있다

어떻다

that primes, frames, and sets the agenda,
점화하고 구성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가 아니라

not the original news stories.

원래의 뉴스 기사가 아니라.

it ~ that 강조 it may be X that ...은 X를 강조하는 틀이다. 강조되는 건 **the manipulation of memories**. 그리고 문장 끝의 **not the original news stories**가 강조된 것의 반대쪽을 못 박는다.

또 하나 — 명사 **agenda setting, priming, framing**(㉔)이 여기서 동사 **sets the agenda, primes, frames**로 바뀐다. 같은 말을 품사만 바꿔 되받는 것도 삽입 자리의 단서다.

정체 정답률 41%가 여기서 나온다

① 인용 두 개가 지문의 절반이다(㉔㉔, 88토큰). 인용을 본문으로 착각하면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엉킨다. 인용은 근거, 그 것을 받는 문장이 주장이다(㉔).

② ㉔에서 소재가 바뀐다. 기억 → 미디어 이론. **This ... has a bearing on**이 그 다리인데, 여기를 흘리면 뒤 세 문장이 땀 글이 된다.

③ 수사의문문을 질문으로만 읽는다. **But what if ...?**는 묻는 게 아니라 결론을 끌어내려는 장치다. 답이 바로 뒤에 온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agenda	8	의제	‘일정표’가 아니다. set the agenda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 정하다
prime	8	점화하다 (동사)	‘최고의·주된’이 아니다. 평가 잣대를 미리 깔다
retrieval	8	인출, 꺼내기	② available for retrieval 꺼내기 쉬운
retrieve	7	불러오다	④ storing and retrieving 저장과 인출 — 왜곡되는 두 지점
distort	7	왜곡하다	③⑥ 2회 + distortions (④). 이 지문의 본체어
cognitive	7	인지의	④ cognitive bias —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버릇
readily	7	즉시, 쉽게	⑤ readily accessible — 세 이론의 공통 전제
accessible	6	접근 가능한	⑤ — 지문 A의 access 와 한 뿌리
manipulation	6	조작	⑦ — it ~ that 으로 강조되는 주어
setting	5	설정	‘배경·환경’이 아니다. agenda setting 의제 설정
unusual	5	색다른	② — 지문 A의 out of ordinary 와 같은 자리
theory	5	이론	⑤ theories of ~ 세 이론을 묶는 말

코퍼스 미등재 — 사전 없이는 못 읽는 것

framing 프레임 · **priming** 점화 · **unwarranted** 부당한 · **faulty** 불완전한·결함 있는 · **dull** 밋밋한 · **bearing** 관련·영향 · distortion 왜곡 · continually 계속해서

▶ 함정 세 단어가 전부 쉬운 뜻으로 먼저 떠오른다

agenda → 회의 일정 ☒ 의제 —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 ☐

prime → 최고의·주된 ☒ 점화하다 — 평가의 잣대를 미리 깔다 ☐

frame → 액자·틀 ☒ 구성하다 — 어떤 틀로 보도하다 ☐

셋이 한 묶음으로 미디어·정치 지문에 늘 함께 나온다. 하나를 알면 나머지도 그 자리라는 걸 안다. **따로 외우지 말고 셋을 붙여 외운다.**

▶ 읽기 두 지문의 어휘가 한 줄로 이어진다

두 지문 모두 기억을 다룬다. A는 기억을 담는 그릇의 은유를, B는 그 기억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말한다.

개념	지문 A	지문 B
저장과 인출	stores · later retrieval · “saved”	available for retrieval
무엇이 남는가	preserve · imprinted (다 남는다는 통념)	unusual and striking ↔ normal and dull
기억을 보는 눈	모든 경험이 저장된다는 통념	distorting in self-serving ways · cognitive bias

A는 기억을 무엇이든 담는 저장고로 보는 통념의 변천을, B는 그 저장·인출이 실은 선택적이고 왜곡됨을 보여 준다. **완벽한 기록이라는 믿음에서 왜곡이라는 사실로 넘어간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기억은 그대로 저장되지 않는다

	지문 A · 저장 은유	지문 B · 왜곡
기억이란	저장고(은유)	재구성·왜곡
근거	밀랍→컴퓨터 compared to technology	편향 연구 self-serving bias
파장	“모두 저장” 믿음	여론·프레이밍
문항 열쇠	두 칸 교차(요약)	But what if 자리(삽입)

A는 “기억을 저장 기술에 비유해 왔다”, B는 “실제 기억은 왜곡된다”고 한다. A가 통념(저장)을 보여 주고, B가 그것을 실제(재구성·왜곡)로 뒤집는다 — 나아가 왜곡된 기억이 여론까지 만든다.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근거 요약문·문장삽입, 이렇게 푼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요약문[3점](A)	반복 구조가 두 칸을 정함 — compared to + technology, 둘 다 확인
문장삽입[3점](B)	But what if(반문)가 들어갈 전환점을 찾는다

요약은 “두 칸 교차”, 삽입은 “전환의 자리”. 한 칸·한 단서에 낚이지 않는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저장의 말	retrieval · imprint · compared to · advent · regard as · saved
왜곡의 말	self-serving bias · distort · framing · vivid · agenda setting · priming
숨은 뜻	retrieval=인출 · imprint=새기다 · self-serving=자기 위주의
문항의 표지	요약=두 칸 교차 · 삽입=전환점

- ✓ 기억을 시대의 기술에 비유해 왔다 — 밀랍→컴퓨터, 공통 믿음은 “저장”(A).
- ✓ 요약은 두 칸을 따로 검증 — compared to + technology.
- ✓ 실제 기억은 왜곡되어 여론(프레이밍)까지 만든다(B).
- ✓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 — 통념(A) vs 실제(B).

다음 단원 예고 — 고3편 UNIT 04로 이어진다. PART 1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다음 장면을 본다.

주의는 한정된 자원이다.

BEFORE

집중은 마음먹기에 달렸고,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여긴다.

AFTER

두 지문은 주의의 한계를 본다. 지향적 주의는 피로해 회복이 필요하고(지문 A), 인터넷이 주의를 표면으로 흘린다(지문 B). 주의는 예산처럼 한정돼 있다.

들어가기 고3편 PART 1의 넷째 소재 — 주의력

지문 A는 두 종류의 주의다 — 집중이 필요한 지향적 주의(directed)는 피로해, 판단력·충동 조절을 떨어뜨린다. 회복법은 명상 같은 비자발적 주의(involuntary)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자연을 보는 것이다(경치 좋은 길·나무가 보이는 병실이 회복을 돕는다). 지문 B는 인터넷과 주의다 — 주의는 하나의 길을 택하는 선택(William James)이지만, 하이퍼링크마다 “빠져 나가는 길”이 부른다. Carr는 깊이 읽는 능력을 잃고 표면만 훑게 됐다 — “이제 나는 제트스키를 타듯 수면을 스친다.”

A는 문장삽입, B는 함축의미[3점]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15.7 고3 학평 · 문장삽입	2024.10 고3 학평 · 함축의미[3점]
정답률	58%	55%
주의의 문제	피로·회복	분산·표면화
해법/원인	자연·명상이 회복	인터넷이 흘뜨림
열쇠 표현	directed attention · restore · recover	off-ramp · sidetracked · skin-deep

한 쌍이다 A는 “지향적 주의는 피로해 회복이 필요”, B는 “인터넷이 주의를 표면으로 흘린다”고 한다. 둘 다 주의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말 — 아껴 회복하고(A), 흘뜨리지 말아야(B) 한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두 종류의 주의 — 피로와 회복 (지문 A)

주의는 두 종류이며, 지향적 주의는 “쓰면 닳는다”.

주의	특징
지향적(directed)	집중 과제에 쓰임 → 피로 , 판단·충동조절 저하
비자발적(involuntary)	명상·자연 감상 → 회복 을 돕는다

회복법 — 명상으로 전환하거나 **자연을 보는 것**. 경치 좋은 길 통근자는 스트레스에서 더 빨리 회복했고, **나무가 보이는 병실** 환자는 진통제가 덜 필요했다.

개념 2 인터넷과 주의의 분산 (지문 B)

주의는 “하나의 길을 택하는 선택”이다(William James).

매력적인 “빠져나가는 길(off-ramp)”이 신호해도 한 길에 머무는 것

실패하면 산만·혼란(scatterbrained) 상태 — 주의의 반대

인터넷의 하이퍼링크는 매번 빠져나가라고 부른다

Carr는 **깊이 읽는 능력을 잃었다** — 끊임없는 자극을 갈망하게 됐다. “**한때 나는 단어의 바다의 잠수부였으나, 이제 제트스키로 수면을 스친다.**”

× 통념

○ 지문이 말하는 것

집중은 마음먹기	지향적 주의는 피로 하다 (A)
쉬는 건 낭비	자연·명상이 회복 시킨다 (A)
인터넷은 정보를 넓힌다	주의를 표면화 한다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주의는 한정된 자원이다.” A는 **피로·회복**을, B는 **분산·표면화**를 본다. 주의는 예산처럼 아껴 회복하고 흘뜨리지 말아야 한다.

1 · 주제 어휘망 — 회복의 말과 분산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주의·회복**의 말(directed attention · restore · recover)과 **분산**의 말(off-ramp · sidetracked · skin-deep). 둘 다 “**주의의 한계**”다.



두 지문이 “주의”를 두 각도로 본다

	지문 A (고3)	지문 B (고3)
문제	피로	분산
해법/원인	자연·명상이 회복	인터넷이 흩뜨림
근거	Ulrich 실험	James·Carr
문항 유형	문장삽입 — another activity	함축의미[3점] — Jet Ski

이 단원의 열쇠 대비 — A의 피로 → 회복, B의 분산 → 표면화. 둘 다 “주의는 한정 자원”이라는 하나로 모인다.

2 · 지문 A — 지향적 주의는 회복이 필요하다

2015.7 고3 학평 · 문장삽입

정답률 58%

8문장 · 평균 21토큰

“We have two kinds of attention,” says Andrea Faber Taylor, an environmental psychologist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The first is the “**directed attention**” we call on for tasks that require focus, like driving or doing our taxes. ㉠ Directed attention tends to be **tiring**, however, and fatigue affects our ability to **make good decisions and control destructive impulses**. ㉡ The best way to restore directed attention is to give it a rest by shifting to the second type, “**involuntary attention**,” which we display when we **meditate**. ㉢ For example, Roger Ulrich at Texas A&M University found that people who commuted along **scenic roads** recovered more quickly from stressful driving conditions than those who saw billboards, buildings, and parking lots. ㉣ Ulrich also looked at patients recovering from surgery. ㉤ The patients who could **see trees** from their hospital beds needed **fewer painkillers** and had shorter hospital stays than those who looked out on brick walls.

주어진 문장 Looking at nature is another activity that gives our **directed attention a chance to recover**.

자연을 보는 것 역시 지향적 주의가 회복할 기회를 주는 또 하나의 활동이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리를 정하는 법 주어진 문장은 “자연을 보는 것도 또 하나(another)의 회복 활동”이다. **another**는 앞에 **회복 활동 하나**(명사, ㉢ 앞)가 있어야 성립하고, 뒤의 “**For example ... 경치 좋은 길**”이 바로 그 자연의 예다. 정답 ③(㉢).

왜 ㉢인가 **another가 명사 다음, For example 앞**

㉢ 앞 — 회복법①: **명상(involuntary attention)**

주어진 문장 — 자연 감상도 “**another(또 하나)**” 회복 활동

㉤ 뒤 — **For example**, 경치 좋은 길·나무 병실(자연의 예)

→ 명상(앞) + 자연(주어진) → 예시(뒤) = ㉢

규칙 하나 — **another**는 앞에 **같은 종류 하나**를, 뒤 **For example**은 그것의 예를 요구한다. 명사 다음, 자연 예시 앞 = ㉢.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②③ 두 주의 — 지향적은 피로 전반

두 종류

Two kinds of attention — the first is **directed attention** for focus tasks (driving, taxes).

주의는 두 종류 — 첫째는 집중 과제(운전·세금)에 쓰는 **지향적 주의**.

그러나

Directed attention is **tiring**; fatigue harms **decisions and impulse control**.

지향적 주의는 **피로**하다 — 피로는 **판단과 충동 조절**을 해친다.

tiring — 회복이 필요한 이유

지향적 주의는 **쓰면 닳는** 자원이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고, 회복법이 이어진다 — 명상(㉠ 앞)과 자연(주어진 문장).

④·주어진·㉠뒤 회복법 — 명상과 자연 삽입

회복법

Restore it by shifting to **involuntary attention** (meditate); **looking at nature is another** such activity.

비자발적 주의(명상)로 전환해 회복하고 — 자연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회복 활동이다.

another — 앞의 “명상”을 받는다

involuntary attention(명상) 다음에 “**nature도 another**”가 온다. **another**가 앞의 한 방법을 받으니, 주어진 문장은 ㉠에 들어간다.

⑥⑦⑧ Ulrich의 증거 **예시****예: 통근**

Ulrich found commuters along **scenic roads** recovered faster than those seeing billboards and parking lots.

Ulrich은 **경치 좋은 길** 통근자가 광고판·주차장을 본 이들보다 더 빨리 회복함을 발견했다.

예: 병실

Patients who could **see trees** needed **fewer painkillers** and had shorter stays than those facing brick walls.

나무가 보이는 환자는 벽돌담을 본 이들보다 **진통제**가 덜 필요했고 입원도 짧았다.

For example ... trees — 자연 회복의 증거 두 예(통근·병실) 모두 **자연을 볼 때** 회복이 빨랐다. 이 예시들이 주어진 문장(자연=회복 활동)의 **근거다** —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그 앞(㉔)에 온다.

정체 **고3 58% — another·For example의 짝**

㉔ — 아직 **지향적 주의의 피로** 단계(회복법 전)

㉕ — 이미 **자연 예시(Ulrich)** 안이라 주어진 문장이 뒷북

㉖ — **명상(앞) → 자연도 another(주어진) → For example(뒤)**

규칙 하나 — another + For example의 짝을 찾는다. “또 하나(자연)”가 먼저 나오고 그 “예(Ulrich)”가 뒤따르는 자리 = ㉖.

한 줄로 지향적 주의는 피로해 회복이 필요하며, 명상과 자연 감상이 그것을 회복시킨다(경치 좋은 길·나무 병실이 증거).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주의·회복**의 말이 축이다 — **directed attention · restore · recover**. 삽입은 **another(명상 다음)**가 자리를 정한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directed attention	④	지향적 주의	전체 — 집중 과제에 쓰는 피로한 주의
involuntary	④	비자발적인	④ involuntary attention 명상 시의 주의
restore	⑥	회복시키다	④ restore directed attention 주의를 회복시키다
fatigue	⑤	피로	③ fatigue affects decisions 피로가 판단을 해침
commute	⑤	통근하다	⑥ commuted along scenic roads 경치 길을 통근
scenic	④	경치 좋은	⑥ scenic roads 경치 좋은 길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two kinds of ~ 두 종류의 ~ · **call on ~ for ...** ...을 위해 ~을 동원하다 · **tend to be** ~ ~한 경향이 있다 · **give it a rest** 쉬게 하다 · **shift to** ~ ~로 전환하다 · **another activity that** ~ ~하는 또 하나의 활동 · **recover from** ~ ~에서 회복하다 · **fewer painkillers** 더 적은 진통제

함정 삽입 — **another·For example**의 짝을 본다

문장삽입에서 **another(또 하나)**와 **For example(예를 들면)**은 강력한 자리 단서다.

another — 앞에 **같은 종류 하나(명상)**가 있어야 함

For example — 뒤에 그것의 **예(Ulrich)**가 와야 함

주어진 문장(자연=또 하나의 회복 활동)은 **명상 다음, 예시 앞에** 놓여야 한다 — 연결어의 짝이 자리를 못 박는다(㉞).

3 · 지문 B — 빠져나가는 길이 계속 부른다

A가 양의 문제(홍수)였다면, B는 선택의 문제다 — 고를 수는 있는데 계속 흔들린다.

2024.10 고3 학평 · 합의 추론 [3점]

정답률 55%

10문장 · 평균 23토큰

In 1890, William James described attention as "the taking possession by the mind, in clear and vivid form, of **one out of what seem several simultaneously possible objects** or trains of thought." Attention is **a choice we make to stay on one task, one line of thinking, one mental road**, even as **attractive off-ramps** signal. When we fail to make that choice and allow ourselves to be frequently **sidetracked**, we end up in "the confused, dazed, **scatterbrained state**" that James said is the opposite of attention. Staying on one road got much harder when the internet arrived and moved much of our reading online. **Every hyperlink is an off-ramp**, calling us to abandon the choice we made moments earlier. Nicholas Carr, in his 2010 book, grieved his lost ability to stay on one path. Life on the internet changed how his brain sought out information, **even when he was off-line trying to read a book**. It reduced his ability to focus and reflect because he now **craved a constant stream of stimulation**: "Once I was a **scuba diver in the sea of words**. Now I zip along the surface like a guy on a Jet Ski."

* off-ramp: 빠져나가는 길 ** dazed: 멍한 ** crave: 갈망하다

밑줄 친 **Now I zip along the surface like a guy on a Jet Ski**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Ironically, the convenience of downloading digital creations restrains people's creativity.
- ② By uncritically accepting information, we get trapped in a cycle of misunderstanding.
- ③ People's attention is naturally drawn to carefully analyzed and well-presented data.
- ④ **We now deal with the information in a skin-deep manner, constantly being distracted.**
- ⑤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we comprehend the information quickly and thoroughly.

합의 문항 비유는 짝으로 온다 — 앞 문장을 반드시 본다

밑줄만 보면 "제트스키를 탄다"밖에 안 나온다. 바로 앞 문장이 짝이다.

	Once (전)	Now (후)
비유	scuba diver in the sea	a guy on a Jet Ski
위치	in the sea of words — 안으로	along the surface — 위로
속도	느리게 (잠수)	zip 생 — 빠르게
뜻	깊이 읽기 · 몰입	표면만 훑기 · 산만

깊이 ↔ 표면이 답이다. 선택지에서 그 말을 찾으면 ㉠ skin-deep(피부 깊이 = 겉핥기) + constantly being distracted(계속 산만). 두 요소가 다 들어 있는 건 ㉠뿐이다.

㉠가 위험하다 quickly는 맞다(zip). 그런데 thoroughly(철저히)가 정반대다 — 제트스키는 표면만 지나간다. 비유의 절반만 맞는 선택지가 늘 하나 있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① 38토큰 · 정의 인용

언제·누가

In 1890, William James described attention as
1890년에 William James는 주의를 ~라고 기술했다

무엇으로

"the taking possession by the mind, in clear and vivid form, of one out of what seem several simultaneously possible objects or trains of thought."

"동시에 가능해 보이는 여러 대상이나 생각 줄기 중 하나를 분명하고 선명한 형태로 정신이 붙잡는 것."

긴 명사구를 쪼갬다 the taking possession ... of one out of ~ — taking possession of가 한 덩어리고 그 사이에 by the mind와 in clear and vivid form이 끼어 있다. 끼어든 둘을 지우면 "정신이 여럿 중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남는다. of가 어디에 걸리는지만 잡으면 38토큰이 한 줄이 된다.

② 27토큰 · parsing_core 0.90 · 재정의

무엇이

Attention
주의력은

어떻다

is a choice we make to stay on one task, one line of thinking, one mental road,
하나의 일, 하나의 생각 줄기, 하나의 정신의 길에 머물기 위해 우리가 하는 선택이다,

~인데도

even as attractive off-ramps signal.
매력적인 빠져나가는 길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한 문장에 세 번 one task, one line, one road — one을 세 번 반복해 "하나"를 못 박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even as로 유혹이 있는데도를 붙인다. 주의 = 선택 + 유혹을 견뎌. 이 두 요소가 뒤 문장 전부를 지배한다.

여기서 road가 등장하고, off-ramp(고속도로 출구)가 그 위에 얹힌다. 이 도로 비유가 ㉠·㉡까지 계속 간다.

③ 37토큰 · 반대쪽

언제

When we fail to make that choice and allow ourselves to be frequently sidetracked,
그 선택을 못 하고 자꾸 결길로 새게 두면

어떻다

we end up in "the confused, dazed, scatterbrained state"
"혼란스럽고 멍하고 정신이 산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게 뭔데

that James said is the opposite of attention.
(James가 주의의 반대라고 말한 상태.)

반대를 정의한다 개념 지문은 "X가 아닌 것"으로 X를 다시 정의한다. 여기서는 주의의 반대 = 산만한 상태. ①의 정의(하나를 붙잡음)와 짝을 이룬다. 정의 → 반대 → 사례가 이 지문의 뼈대다.

④ ⑤ 19 + 19토큰 · 인터넷이 바꾼 것

무엇이

Staying on one road

한 길에 머무는 일이

어떻다

got much harder **when the internet arrived** and moved much of our reading online.

인터넷이 오면서 훨씬 어려워졌다 — 읽기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무엇이

Every hyperlink is an off-ramp,

모든 하이퍼링크가 빠져나가는 길이다,

그게 뭔데

calling us to **abandon the choice we made moments earlier.**

조금 전에 한 선택을 버리라고 부르면서.

비유가 회수된다 ②에서 짚아둔 **road**와 **off-ramp**가 여기서 구체물과 연결된다 — 하이퍼링크 = 출구. 비유를 세우고(②) 그것에 실물을 붙이는(⑤) 것이 개념 지문의 전형적인 전개다. 비유가 어디서 세워졌는지를 기억해야 뒤가 읽힌다.

⑥ ⑦ ⑧ 18 + 25 + 18토큰 · 증언

무엇이

Nicholas Carr, in his 2010 book, **grieved his lost ability to stay on one path.**

Nicholas Carr는 2010년 저서에서 한 길에 머무는 능력을 잃은 것을 슬퍼했다.

무엇이

Life on the internet **changed how his brain sought out information,**

인터넷에서의 생활이 뇌가 정보를 찾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

~할 때조차

even when he was off-line trying to read a book.

그가 오프라인에서 책을 읽으려 할 때조차.

그 결과

It reduced his ability to focus and reflect

그것이 집중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떨어뜨렸다

왜

because he now **craved a constant stream of stimulation:**

이제 그가 끊이지 않는 자극의 흐름을 갈망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 **even when he was off-line** — 이 한 마디가 이 지문의 무게중심이다. 인터넷을 끄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뇌가 이미 바뀌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다음 문장의 **craved**(갈망했다)가 나온다 — **중독의 어휘**다.

앞서 본 **even as**와 같은 자리다. **even**이 붙은 절은 늘 “~인데도/~조차”로 한 발 더 밀어붙이는 자리다.

⑨ ⑩ 13 + 15토큰 · 비유로 닫기

함의 문항

전

“Once I was a **scuba diver in the sea of words.**”

“한때 나는 언어의 바다 속 잠수부였다.”

후

Now I **zip along the surface** like a guy on a Jet Ski.”

이제는 제트스키 탄 사람처럼 수면 위를 뺑 지나간다.”

Once ↔ Now **Once ~ / Now ~**는 전후 대비를 못 박는 틀이다. 이 틀이 보이면 두 비유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만 보면 된다 — 바다 속 ↔ 수면 위, 잠수 ↔ 활주. 그게 함의 문항의 답이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simultaneously	⑥	동시에	① — 여럿이 같이 가능하니 골라야 한다
possession	⑥	차지, 소유	① taking possession of — James 정의의 핵심어
stimulation	⑥	자극	④ constant stream of stimulation — 중독의 대상
stream	⑥	흐름 — 비유	‘시냇물’이 아니다.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것
signal	⑥	신호를 보내다	② off-ramps signal 출구가 부른다 — 동사다
opposite	⑥	반대	③ the opposite of attention — 반대로 정의하는 자리
frequently	⑥	자주	③ frequently sidetracked 자주 결길로
confused	⑥	혼란스러운	③ — dazed · scatterbrained와 세 개 한 묶음
abandon	⑤	버리다	⑤ abandon the choice 한 선택을 버리다
attractive	⑤	매력적인	② attractive off-ramps — 유혹이라는 뜻
seek	⑤	찾다 (sought)	⑦ sought out 찾아냈다 — 과거형이 sought
constant	⑤	끊이지 않는	④ a constant stream of stimulation 끊이지 않는 자극의 흐름

코퍼스 미등재 — 사전 없이는 못 읽는 것

off-ramp 고속도로 출구 · **sidetrack** 결길로 새게 하다 · **scatterbrained** 정신이 산만한 · **daze** 멍하게 하다 · **crave** 갈망하다 · **grieve** 슬퍼하다 · **zip** 썸 지나가다 · hyperlink · scuba

▶ **함정** 미등재어가 전부 비유의 핵심에 몰려 있다

이 지문의 미등재어 아홉 개 중 **다섯이 비유를 짚어진다**.

off-ramp → 도로 비유의 축. 모르면 ②⑤가 통째로 안 보인다

sidetrack → **side**(옆) + **track**(길). 뜯으면 “옆길로 빠지다”

scatterbrained → **scatter**(흩다) + **brain**. 뜯으면 “뇌가 흩어진”

zip → 지퍼 소리 → **썸 하고 빠르게**. 함의 문항의 **속도** 요소

crave → 갈망하다. **중독**을 가리키는 신호어

sidetrack · **scatterbrained**는 뜯으면 나온다. **off-ramp** · **zip** · **crave**는 안 나온다 — 이 셋은 **외워야** 하는 쪽이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주의는 한정된 자원이다

	지문 A · 피로·회복	지문 B · 분산
문제	지향적 주의 피로	인터넷 분산
기제	자연·명상이 회복 restore/recover	하이퍼링크 off-ramp skin-deep
근거	Ulrich 실험	James-Carr
문항 열쇠	another·For example(삽입)	비유의 본문 번역(함축)

A는 “지향적 주의는 피로해 회복이 필요”, B는 “인터넷이 주의를 표면화”한다고 한다. 둘 다 주의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말이 다 — 아껴 회복하고(A), 하이퍼링크에 흠뻑리지 말아야(B) 한다. 주의는 예산처럼 쓰인다.

근거 문장삽입·함축, 이렇게 푼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문장삽입(A)	another + For example의 짝 — 명상 다음, 자연 예시 앞
함축[3점](B)	비유(Jet Ski)는 본문의 쉬운 문장으로 번역 — 표면만 훑음(skin-deep)

삽입은 “연결어의 짝”, 함축은 “본문의 번역문”. 고3도 원리는 같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회복의 말	directed attention · restore · recover · involuntary · fatigue · scenic
분산의 말	off-ramp · sidetracked · skin-deep · hyperlink · scatterbrained · stimulation
숨은 뜻	restore=회복시키다 · off-ramp=빠져나가는 길 · skin-deep=표면적인
문항의 표지	삽입=another·For example · 함축=본문 번역

- ✓ 지향적 주의는 피로해 명상·자연으로 회복해야 한다(A).
- ✓ 삽입은 another·For example의 짝 — 명상 다음 자연, 그 앞이 ㉠.
- ✓ 인터넷이 주의를 표면화 — 제트스키처럼 수면만 스침(B).
- ✓ 주의는 한정 자원 — 아껴 회복하고 흠뻑리지 말라.

다음 단원 예고 — 고3편 UNIT 05로 이어진다. PART 1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다음 장면을 본다.

지각은 감각만이 아니다.

BEFORE

맛은 혀가, 지각은 감각기관이 그대로 전한다 여긴다.

AFTER

두 지문은 지각의 구성성을 본다. 가격이 맛 경험을 바꾸고 (지문 A), 색·냄새로 맛을 미리 예측한다(지문 B). 지각은 감각+맥락·예측이다.

들어가기 고3편 PART 1의 다섯째 소재 — 감각과 지각

지문 A는 지각은 구성물이다 — 와인을 블라인드로 맛보면 가격과 맛 평가가 무관하나, 가격표가 붙으면 상관이 생긴다. 비싼 와인이라 믿으면 뇌의 미각·쾌락 중추가 실제로 더 활성화됐다. “당신은 와인이 아니라 그 가격을 맛본다.” 지문 B는 맛의 역설이다 — 맛은 생존에 중요하나, 뇌에서 미각은 1%뿐이다. 우리는 색·냄새 같은 다른 단서로 맛과 영양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 — 입에 넣지 않고도 먹어도 될지 가능하다.

A는 함축의미, B는 제목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4.3 고3 학평 · 함축의미	2019.7 고3 학평 · 제목
정답률	65%	59%
지각의 진실	가격이 맛을 바꿈	색·냄새로 예측
근거	와인 뇌영상 실험	미각은 뇌의 1%
열쇠 표현	perception · construction · placebo	predict · sensory cues · color and smell

한 쌍이다 A는 “가격이 맛 경험을 바꾼다”, B는 “색·냄새로 맛을 예측한다”고 한다. 둘 다 지각은 순수 감각이 아니라는 말 — 가격(심리)과 다른 감각·예측이 맛을 만든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지각은 구성물 — 가격이 맛을 바꾼다 (지문 A)

지각은 감각 입력의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구성(construction)”이다.

와인 블라인드 시음 — 가격과 맛 평가 무관

그러나 가격표가 붙으면 상관이 생김

뇌영상 — 비싼 와인이라 믿으면 미각·쾌락 중추가 실제 활성화

의식적 착각이 아니라 뇌 수준에서 일어난다 — 플라시보 효과처럼. “당신은 와인이 아니라 그 가격을 맛본다.”

개념 2 맛의 역설 — 색·냄새로 예측 (지문 B)

맛은 생존에 중요하지만, 지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맛은 영양·독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감각처럼 보임

그러나 뇌의 1%만 미각에 관여(시각은 절반 이상)

이유 — 색·냄새 같은 단서로 맛·영양을 미리 예측

그래서 입에 넣지 않고도 먹어도 될지 가능하다 — 맛 지각의 부담을 다른 감각의 예측이 덜어 준다.

× 통념

○ 지문이 말하는 것

맛은 혀가 정한다	가격(심리)이 바꾼다 (A)
미각이 가장 큰 감각	뇌의 1%뿐 (B)
먹어 봐야 안다	색·냄새로 예측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지각은 순수 감각이 아니다.” A는 가격(심리)이, B는 색·냄새(다른 감각)가 맛을 좌우한다. 지각은 감각+맥락·예측의 구성물이다.

1 · 주제 어휘망 — 구성의 말과 예측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구성·심리**의 말(perception · construction · placebo)과 **예측·단서**의 말(predict · sensory cues · color and smell). 둘 다 “**지각의 통념**”이다.



두 지문이 “지각”을 두 각도로 본다

	지문 A (고3)	지문 B (고3)
지각의 진실	가격이 맛을	색·냄새로 예측
근거	와인 뇌영상	미각 1%
함의	지각=구성물	맛보지 않고 가능
문항 유형	함축의미 — you taste its price	제목 — 사례가 증명하는 주제

이 단원의 열쇠 대비 — A의 **가격** → 맛, B의 **색·냄새** → 예측. 둘 다 “**지각은 감각만이 아니다**”는 하나로 모인다.

2 · 지문 A — 와인이 아니라 그 가격을 맛본다

A는 감각끼리의 싸움이었다. B는 감각 밖에서 들어온 정보(가격)가 감각을 바꾼다는 이야기다 — 한 층 위다.

2024.3 고3 학평 · 합의 추론

정답률 65%

8문장 · 평균 30토콘

That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is not true just of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such as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 It is true of your **social perceptions** as well — your perceptions of the people you meet, the food you eat, and even of the products you buy. For example, in a study of wine, when wines were tasted **blind**, there was **little or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tings of a wine's taste and its cost,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hen the wines were **labeled by price**. That wasn't because the subjects **consciously** believed that the higher-priced wines should be the better ones and thus revised whatever opinion they had accordingly. **Or rather**, it wasn't true **just at the conscious level**. We know because as the subjects were tasting the wine, the researchers were **imaging their brain activity**, and the imaging showed that drinking what they believed was an expensive glass of wine **really did activate** their centers of taste for pleasure more than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that had been labeled as cheaper. That's related to **the placebo effect**. Like pain, taste is not just the product of sensory signals; it depends also on **psychological factors**: you don't just taste the wine; you taste its price.

밑줄 친 **you taste its price**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Customer ratings determine the price of a product.
- ② We fool ourselves into thinking our unplanned buying was reasonable.
- ③ We immediately dismiss opposing opinions without any consideration.
- ④ The brain shows consistent response regardless of personal preference.
- ⑤ **The perceived value of a product influences one's subjective experience of it.**

합의 문항 밑줄 앞의 세미콜론이 답을 준다

you don't just taste the wine; you taste its price — 세미콜론이 두 절을 대비시킨다. 앞을 부정하고 뒤로 바꿔 말하는 틀이다.

the wine = 실제 물질 · 감각 신호 → **sensory signals**

its price = 그것에 붙은 정보·믿음 → **psychological factors**

바로 앞 절이 이미 답을 말해 놓았다 — **taste is not just the product of sensory signals; it depends also on psychological factors**. 밑줄은 그 문장을 비유로 압축한 것뿐이다.

그래서 ㉠ **The perceived value**(인식된 가치, = 가격이 만든 믿음) **influences one's subjective experience**(주관적 경험에 영향). 두 요소가 정확히 대응한다.

㉠가 위험하다 **fool ourselves**(스스로를 속인다)가 그럴듯하다. 그러나 지문은 “속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다르게 느꼈다”고 한다 — 뇌 영상이 그 증거다(㉠). **착각이 아니라 진짜 경험**이라는 게 이 글의 요점이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①② 24 + 31토큰 · 범위를 넓힌다

무엇이

That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지각이 구성물이라는 것은

어떻다

is not true **just of**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such as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

시청각 정보 같은 감각 입력에 대한 지각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어떻다

It is true of your social perceptions as well — your perceptions of the people you meet, the food you eat, and even of the products you buy.

사회적 지각에도 마찬가지다 —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심지어 사는 물건에 대한 지각까지.

That이 주어다

문장 첫머리의 **That**은 “저것”이 아니라 **절을 주어로 만드는 That**이다. **That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전체가 주어이고 **is not true**가 동사다. **That + 주어 + 동사 ...**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라는 것은”으로 읽는다.그리고 **not just A ... but B as well** 틀이다 — **부정이 아니라 확장**이다. “감각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각도”. **not**을 보고 **반박으로 읽으면 안 된다**.

③ 47토큰 · 실험 결과

어디서

For example, in a study of wine,

예를 들어 와인 연구에서,

조건 1

when wines were tasted **blind**,

와인을 조건을 숨기고 시음했을 때

결과 1

there was **little or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tings of a wine's taste and its cost,

맛 평가와 가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hen the wines were **labeled by price**.

그러나 가격표를 붙였을 때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조건만 바꿨다

같은 와인, 같은 사람. 바뀐 건 **가격표가 있느냐**뿐이다. 앞서 본 **통제 → 조작 → 결과**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다.**blind**는 “눈이 먼”이 아니라 “**정보를 가린**”이다. 실험 지문에서 **blind test / double-blind**는 늘 이 뜻으로 나온다.

㉔ ㉕ 28 + 13토큰 · 뻔한 설명을 미리 막는다

그게 아니다

That **wasn't because** the subjects **consciously believed** that the higher-priced wines should be the better ones

그건 피험자들이 **의식적으로** “비싼 게 더 좋겠지”라고 믿어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and thus **revised whatever opinion they had** accordingly.

그에 맞춰 **원래 의견을 고쳐서**가 아니었다.

더 정확히는

Or rather, it wasn't true **just at the conscious level**.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식 수준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다.

예상 반론을 먼저 친다

독자가 떠올릴 **가장 뻔한 설명**(“비싸니까 좋다고 생각한 거겠지”)을 **글쓰기가 먼저 꺼내서 부정**한다. 논증 지문의 전형적인 수순이다.

그리고 **Or rather**가 자기 말을 **한 번 더 조인다** — “아예 아니다”가 아니라 “**의식 수준'만'이 아니다**”로. 부정의 범위를 정확히 좁히는 자리다. 여기를 놓치면 ㉔의 뇌 영상이 왜 필요한지 모른다.

㉖ 59토큰 · parsing_core 0.94 — 이 단원 최장·최고 부하 **증거**

어떻게 아나

We know because

우리가 아는 이유는

~하는 동안

as the subjects were tasting the wine, the researchers were **imaging their brain activity**,

피험자들이 시음하는 동안 연구자들이 **뇌 활동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고,

무엇이

and the imaging **showed that** drinking **what they believed was an expensive glass**

그 영상이 **비싸다고 믿은 잔**을 마시는 것이

어떻다

really did activate their centers of taste for pleasure **more than**

쾌락을 담당하는 미각 중추를 **정말로 더 활성화했다**고 보여줬다

무엇보다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that had been **labeled as cheaper**.

싸다고 표시된 **같은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59토큰을 다섯 칸으로

[근거 신호] [동시 상황] [무엇이] [어떻다] [무엇보다] 다섯 칸이다.

두 군데만 조심하면 된다.

① **what they believed was an expensive glass** — **what**절 안에 **they believed**가 삽입돼 있다. 빼면 **what was an expensive glass**. “그들이 비싸다고 믿은 것”이 통째로 **drinking**의 목적어다.

② **really did activate** — **did**는 과거가 아니라 강조다. “정말로 활성화했다”. 앞에서 “의식 탓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못을 박는** 것이다.

⑦ ③ 8 + 33토큰 · 이름 붙이고 달기 **함의****이름**That's related to **the placebo effect**.

이는 플라시보 효과와 관련된다.

~처럼**Like pain,**

통증과 마찬가지로,

~만이 아니다taste is **not just** the product of **sensory signals**; it depends **also** on **psychological factors**:

미각은 감각 신호의 산물만이 아니다; 심리적 요인에도 좌우된다:

즉**you don't just taste the wine; you taste its price.**

와인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을 맛본다.

콜론과 세미콜론 콜론(:)은 앞말을 구체적으로 풀어 놓는 자리이고, 세미콜론(;)은 대등한 두 절을 붙이는 자리다.여기서는 콜론 뒤가 세미콜론으로 다시 갈린다 — **psychological factors**를 “와인이 아니라 가격”으로 압축해 보인 것이다. 문장부호가 논지의 계단이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sensory	8	감각의	①③ sensory input / signals — 받는 쪽
subject	7	피험자	‘주제·과목’이 아니다. ⑥⑥ — 앞서 본 것과 같은 함정
correlation	7	상관관계	③ 2회 — 있다/없다 가 실험의 결과
auditory	7	청각의	① — visual과 한 짝
perception	6	지각, 인식	①② 3회 — 이 단원의 이름
psychological	6	심리적인	⑥ psychological factors — 결론어
consciously	6	의식적으로	④ — 부정되는 설명. 의식 탓이 아니다
rating	6	평가(점수)	③ the ratings of a wine's taste
significant	5	유의미한	‘중요한’보다 통계적으로 뚜렷한 . 실험 지문의 전문어
activate	5	활성화하다	⑥ really did activate — 뇌가 실제로 반응했다
revise	5	고치다	④ revised whatever opinion 의견을 수정했다
input	5	입력 정보	① — 이 지문의 핵심어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placebo effect 플라시보 효과 · **blind**(시음·실험에서) **조건을 가린** · **image**(동사) 영상으로 찍다 · **label A by/as B** A에 B로 표시하다 · **accordingly** 그에 맞춰 · **Or rather** 더 정확히 말하면 · **little or no** ~ 거의 없는

3 · 지문 B — 맛보지 않고도 맛을 안다

2019.7 고3 학평 · 제목

정답률 59%

6문장 · 평균 26토큰

Taste is **crucial to our survival**. In a way, one might think of it as the **most important of our senses** — helping us to distinguish between that which is nutritious and that which may be poisonous. **And yet**, on closer inspection, it turns out **not to be so important**, at least not in terms of perception. While more than half of the brain is involved in processing what we see, **only something like 1% of the cerebral cortex is directly involved in taste percep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our brains **pick up on the statistical regularities** of the environment, and so we learn to **predict the likely taste and nutritional properties** of potential foodstuffs **on the basis of other sensory cues, such as color and smell**. This allows us to **assess the likely consequences of ingesting** a whole host of different foods **without necessarily having to stick them into our mouths first** in order to determine what they taste like.

* cerebral cortex: 대뇌 피질 ** ingest: 섭취하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Good Looking Foods Taste Good As Well!
- ② Taste: The Most Critical Sense for Survival
- ③ Color & Smell: The Fake Cues for Nutrition
- ④ **How We Perceive Foods Without Tasting Them**
- ⑤ All of Our Senses Help Us Understand Our Surroundings

제목을 정하는 법 글은 “맛은 중요해 보이나, 지각에선 1%뿐 — 색·냄새로 미리 예측하기 때문”이다. 즉 맛보지 않고도 맛을 가늠하는 법이 핵심 → ④ **How We Perceive Foods Without Tasting Them**.

왜 ④인가 And yet 이후가 진짜 주제

- ② 맛=가장 중요한 감각 — **And yet**으로 뒤집힌 **미끼**(도입부일 뿐)
- ③ 색·냄새는 가짜 단서 — 오히려 **믿을 만한** 예측 단서라 함(정반대)
- ④ 맛보지 않고 지각 — **predict ... on the basis of color and smell**이 가리킴

규칙 하나 — 제목은 **And yet(그러나)** 이후의 주장이다. 도입부(맛이 중요)에 낚이지 말고 **반전 뒤의 논지**(예측)를 잡는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②③ 맛은 중요? — 그러나 전환

중요하다

Taste is **crucial to survival** — seemingly the **most important** sense (nutritious vs poisonous).

맛은 생존에 중요하다 — 영양·독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감각처럼 보인다.

그러나

And yet, it turns out **not so important** in terms of perception.

그러나 지각의 관점에선 그리 중요하지 않다.

And yet — 제목의 분기점 도입부(맛이 중요)는 미끼다. **And yet** 이후가 진짜 주장 — “지각에선 안 중요하다”. 제목은 이 반전 뒤에서 나온다.

④⑤⑥ 1%뿐 — 색·냄새로 예측 핵심

왜냐면

Only **1% of the cortex** handles taste; brains **predict taste** from **color and smell** — assessing food **without tasting first**.

피질의 1%만 미각 담당 — 뇌는 색·냄새로 맛을 예측해, 맛보기 전에 먹어도 될지 가능한다.

predict ... color and smell — 주제 미각이 작은 이유는 다른 감각(색·냄새)이 예측하기 때문이다. “맛보지 않고 지각”이 글의 핵심 — 제목 ④를 확정한다.

전체 역설의 구조 **제목****역설**

중요해 보이는 맛 → **And yet** 지각에선 1% → 색·냄새로 **예측**하니까

“맛은 중요하다”로 시작해 “그러나 지각에선 작다 — 다른 감각으로 예측하기 때문”으로 뒤집는다. 제목은 이 예측을 담아야 한다.

without tasting them — 제목의 열쇠

마지막 문장 “without ... stick them into our mouths first”가 곧 “맛보지 않고”다 — 제목 ④ **How We Perceive Foods Without Tasting Them**과 정확히 일치.

정체 고3 59% — 도입부·반대 진술에 낚인다

- ② 생존의 가장 중요한 감각 — 도입부(미끼), And yet로 부정됨
- ③ 색·냄새는 **가짜** 단서 — 본문은 **믿을 만한 예측** 단서라 함(정반대)
- ④ 맛보지 않고 지각 — **predict + without tasting**이 그대로 가리킴

규칙 하나 — 제목은 글의 **도착점(반전 뒤)**이다. 도입부(맛 중요)나 표현을 뒤집은 오답(㉠ fake)에 낚이지 않는다.

한 줄로

맛은 중요해 보이나 뇌에선 1%뿐 — 색·냄새로 맛과 영양을 미리 예측해, 맛보지 않고도 먹어도 될지 안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예측·단서**의 말이 축이다 — **predict · sensory cues · perception**. 제목은 **And yet 이후**가 정한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perception	6	지각	㉔ in terms of perception / taste perception (지문 A와 공유)
predict	6	예측하다	㉔ predict the likely taste 맛을 예측 — 제목 열쇠
nutritious	5	영양가 있는	㉔ distinguish nutritious vs poisonous 영양/독
cerebral cortex	3	대뇌 피질	㉔ 1% of the cerebral cortex 피질의 1%
sensory cue	4	감각 단서	㉔ other sensory cues (color, smell) 색·냄새
ingest	3	섭취하다	㉔ consequences of ingesting foods 섭취의 결과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crucial to ~ ~에 결정적인 ·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와 B를 구별하다 · **on closer inspection** 자세히 보면 · **in terms of** ~ ~의 관점에서 · **pick up on** ~ ~을 알아채다 · **on the basis of** ~ ~을 근거로 · **a whole host of** ~ 수많은 ~ · **stick A into B** A를 B에 넣다

읽기 지문 A와 B — 지각은 감각만이 아니다

	지문 A (가격)	지문 B (예측)
맛을 바꾸는 것	가격(심리)	색·냄새(단서)
근거	와인 뇌영상	미각 1%
공통	맛(지각)은 혀만이 아니라 맥락·다른 감각·예측이 만든다	

A는 “가격이 맛을 바꾼다”, B는 “색·냄새로 맛을 예측한다”고 한다. 둘 다 지각은 순수 감각의 반영이 아니라 구성물이라는 말 — 심리(A)와 다른 감각(B)이 맛을 빚는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지각은 감각만이 아니다

	지문 A · 가격	지문 B · 예측
맛을 바꾸는 것	가격(심리)	색·냄새(단서)
근거	와인 뇌영상 taste its price	미각 1% without tasting
함의	지각=구성물	맛보지 않고 가능
문항 열쇠	본문의 번역문(함축)	And yet 이후(제목)

A는 “가격이 맛 경험을 바꾼다”, B는 “색·냄새로 맛을 예측한다”고 한다. 둘 다 지각은 순수 감각의 반영이 아니라 구성물이 라는 말이다 — 심리(A)와 다른 감각·예측(B)이 맛을 만든다. 우리는 세계를 “짓는다”.

근거 함축·제목, 이렇게 본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함축(A)	밑줄(taste its price)은 본문의 쉬운 문장으로 — 가격이 경험을 좌우
제목(B)	제목은 And yet 이후의 주장 — 도입부·반대 진술은 미끼

함축은 “본문 번역”, 제목은 “반전 뒤의 논지”. 도입부·표면 뜻에 낚이지 않는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들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구성물	perception · construction · placebo · correlation · consciously · imaging
예측의 말	predict · sensory cues · perception · nutritious · cerebral cortex · ingest
숨은 뜻	construction=구성물 · pick up on=알아채다 · ingest=섭취하다
문항의 표지	함축=본문 번역 · 제목=And yet 이후

- ✓ 가격이 맛 경험을 바꾼다 — 뇌영상이 증명, 지각은 구성물(A).
- ✓ 함축은 본문의 번역문 — taste its price = 가격이 경험을 좌우.
- ✓ 맛은 뇌의 1% — 색·냄새로 예측해 맛보지 않고 안다(B).
- ✓ 지각은 감각만이 아니다 — 심리(A)와 다른 감각(B)이 만든다.

다음 단원 예고 — 고3편 UNIT 06으로 이어진다. PART 1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마지막 장면을 본다.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

BEFORE

우리는 위험을 **실제 확률대로** 느낀다 여긴다. 스트레스는 자극이 사라져야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AFTER

두 지문은 **위험 지각의 편향**을 본다. 위험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고(지문 A),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두려움을 줄인다(지문 B). 위험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으로 온다.

들어가기 고3편 PART 1의 마지막 소재 — 위험의 지각

지문 A는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이다 — 물고기의 마음을 설계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비용보다 포식자를 놓치는 비용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진화는 **위험에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도록 마음을 빚었다. 지문 B는 **통제감**이다 — 소음 스트레스 실험에서 **멈춤 버튼**을 준 참가자는 더 침착했다. 놀라운 건, 아무도 실제로 누르지 않았다는 것 — 멈출 수 있다는 “**얇**”이 스트레스를 견디게 했다.

A는 **제목**(장문), B는 **순서**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0.3 고3 학평 · 제목(장문)	2018.7 고3 학평 · 순서
정답률	59%	55%
위험 지각	bad > good(위험 민감)	통제감이 완화
근거	물고기 마음의 진화	소음 버튼 실험
열쇠 표현	threats · bad is stronger · adaptive	sense of control · endure · button

한 쌍이다 A는 “위험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B는 “통제감이 두려움을 줄인다”고 한다. 둘 다 위험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으로 처리된다는 말 — 위험엔 민감하고(A), 통제감엔 안심한다(B).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 (지문 A)

진화는 마음을 “위협 민감”하게 빚었다.

물고기 — 먹이 신호를 놓치는 비용은 낮다(다른 먹이가 있음)

그러나 포식자를 놓치는 비용은 치명적(유전자 끝)

그래서 기회보다 위협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됨

진화엔 설계자가 없지만, 자연선택이 빚은 마음은 적응적이다 — 원리 하나는 “bad is stronger than good”: 위협 반응이 더 빠르고 강하며 억제하기 어렵다.

개념 2 통제감이 두려움을 줄인다 (지문 B)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는 느낌”이다.

불쾌한 소음 속 과제 → 땀·심박·실수 급증, 포기

일부에게 멈춤 버튼을 줌 → 더 침착, 실수 감소

반전 — 아무도 실제로 누르지 않았다

소음을 멈춘 게 아니라 멈출 수 있다는 얇이 차이를 만들었다 — 버튼이 준 통제감(sense of control)이 스트레스를 견디게 했다.

×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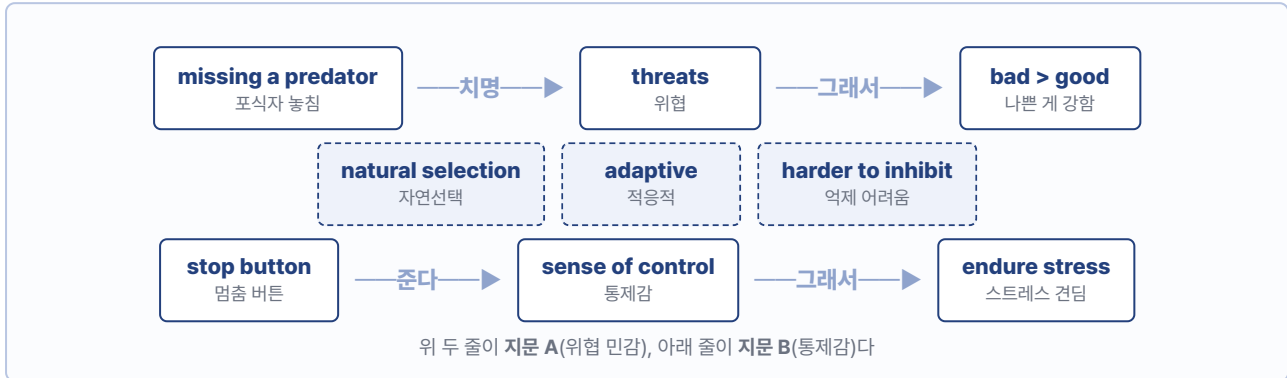
○ 지문이 말하는 것

위험은 확률대로 느낀다	위협에 과잉 민감 (A)
좋고 나쁨은 대등	나쁜 게 더 강하다 (A)
자극이 사라져야 안심	통제감만으로 안심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위험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으로 온다.” A는 위협 민감(bad>good), B는 통제감의 완화 효과를 본다. 지각이 위험의 크기를 정한다.

1 · 주제 어휘망 — 위협의 말과 통제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위협·진화**의 말(threats · bad is stronger · adaptive)과 **통제**의 말(sense of control · endure · button). 둘 다 **“위험의 지각”**이다.



두 지문이 “위험 지각”을 두 각도로 본다

	지문 A (고3)	지문 B (고3)
주제	bad > good	통제감
기제	진화(위협 민감)	멈출 수 있다는 앞
근거	물고기 사고실험	소음 버튼 실험
문항 유형	제목(장문)	순서 — (C)-(B)-(A)

이 단원의 열쇠 대비 — A의 위협 → 과잉 반응, B의 통제감 → 완화. 둘 다 “위험은 느낌으로 온다”는 하나로 모인다.

2 · 지문 A —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

2020.3 고3 학평 · 제목(장문)

정답률 59%

11문장 · 평균 18토큰

Clinical psychologists sometimes say that two kinds of people seek therapy: those who need tightening, and those who need loosening. But for every patient seeking help in becoming more organized, self-controlled, and responsible about her future, there is a waiting room full of people hoping to **loosen up, lighten up, and worry less** about the stupid things they said at yesterday's staff meeting or about the rejection they are sure will follow tomorrow's lunch date. For most people, their subconscious sees **too many things as bad and not enough as good**. It makes sense. If you were designing the mind of a fish, would you have it respond as strongly to opportunities as to threats? No way. The cost of missing a cue that signals food is **low**; odds are that there are other fish in the sea, and one mistake won't lead to starvation. The cost of missing the sign of a nearby predator, however, can be **catastrophic**. Game over, end of the line for those genes. Of course, evolution has no designer, but minds created by natural selection end up looking (to us) as though they were designed because they generally produce behavior that is **flexibly adaptive** in their ecological niches. Some commonalities of animal life even create similarities across species that we might call design principles. **One such principle is that bad is stronger than good**. Responses to threats and unpleasantness are **faster, stronger, and harder to inhibit** than responses to opportunities and pleasures.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Concept of Evolutionary Design: A Biological Nonsense
- ② Pleasure-Seeking Instinct Propels Us to Adventure
- ③ Why Do We Cling to Absurd-Looking Promises?
- ④ Are We Programmed to Be Keener to Threats?
- ⑤ Worries: An Excuse for Persistent Inaction

제목을 정하는 법 글 전체가 “위협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로 보인다 — 포식자를 놓치는 비용이 치명적이라 **bad is stronger than good**. 즉 우리는 위협에 더 민감하도록 프로그램됐다 → 정답 ④.

왜 ④인가 결론 문장이 제목을 정한다

- ① 진화 설계는 난센스 — 글은 “설계된 듯 적응적”이라 함(정반대)
- ② 쾌락 추구 본능 — 글은 **위협 민감**이 주제(반대쪽)
- ④ 위협에 더 민감하게 프로그램? — **bad is stronger than good**이 그대로 가리킴

규칙 하나 — 제목은 **결론 문장**(One such principle ...)을 담는다. 도입(치료·물고기)은 예시일 뿐 — 주제는 “위협 민감”이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②③ 대부분은 “느슨해지고” 싶다 **도입**

도입

Therapy: some need **tightening**, more need **loosening** — worrying about yesterday's words or tomorrow's rejection.

치료 — 조여야 할 사람도 있지만, 느슨해지려는 사람이 더 많다(어제의 말·내일의 거절 걱정).

주제 실마리

The subconscious sees **too many things as bad**. It makes sense.

잠재의식은 너무 많은 것을 나쁘게 본다. 그럴 만하다.

too many things as bad — 주제 예고 도입(치료)은 “왜 우리는 걱정이 많은가”로 이어진다 — 잠재의식이 나쁜 쪽에 치우친다. It makes sense가 그 진화적 이유로 넘어가는 다리다.

④⑤⑥⑦ 물고기 사고실험 **근거**

비용 비교

Missing **food** cue is **low** cost (other fish exist); missing a **predator** is **catastrophic** — game over for those genes.

먹이 신호를 놓침은 손실 작음(다른 먹이 있음); 포식자를 놓치면 치명적 — 그 유전자는 끝.

food(low) ↔ predator(catastrophic) — 비대칭 기회(먹이)와 위협(포식자)의 비용이 비대칭이다. 그래서 마음은 위협에 더 민감하게 진화했다 — 주제(bad>good)의 근거다.

⑧ ⑨ ⑩ ⑪ 설계된 듯 적응적 — 원리 **결론**

적응적

Evolution has no designer, but natural selection makes minds look **designed** — **flexibly adaptive** in their niches; a shared **design principle** emerges.

진화엔 설계자가 없지만 자연선택은 마음을 설계된 듯 보이게 한다 — 생태적소에 유연하게 적응; 공통 설계 원리가 나타난다.

원리

Bad is stronger than good: responses to threats are **faster, stronger, harder to inhibit** than to pleasures.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 — 위협 반응이 쾌락 반응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억제하기 어렵다.

One such principle ... bad is stronger — 제목 문장

글의 결론 문장이 곧 주제다 — **bad is stronger than good**. 제목 ㉠(위협에 더 민감하게 프로그램)는 이 문장의 다른 표현이다.

정체 고3 59% — 도입·반대 진술에 낡인다

- ① 진화 설계=난센스 — 글은 “설계된 듯 적응적”이라 함(정반대)
- ⑤ 걱정=무행동의 핑계 — 도입(치료)에서 온 **미끼**, 주제 아님
- ④ 위협 민감 프로그램 — **bad is stronger + faster/stronger**가 가리킴

규칙 하나 — 장문 제목은 **결론 문장**으로 정한다. 도입의 소재(치료·물고기)나 반대 진술(①)에 낡이지 않는다.

한 줄로

포식자를 놓치는 비용이 치명적이라, 마음은 위협에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위협·진화**의 말이 축이다 — **threats · adaptive · inhibit**. 제목은 **결론 문장(bad is stronger than good)**이 정한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threat	6	위협	㉣㉥ respond to threats — 이 글의 핵심
adaptive	4	적응적인	㉥ flexibly adaptive 유연하게 적응하는
catastrophic	4	치명적인	㉥ can be catastrophic 치명적일 수 있다
natural selection	4	자연선택	㉥ minds created by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
inhibit	4	억제하다	㉥ harder to inhibit 억제하기 어려운
subconscious	4	잠재의식	㉥ their subconscious sees bad 잠재의식이 나쁘게 봄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seek therapy 치료를 받으려 하다 · **loosen/lighten up** 느슨해지다/가벼워지다 · **respond as strongly to A as to B** A만큼 B에 강하게 반응 · **a cue that signals ~** ~을 알리는 신호 · **odds are that ~** 아마 ~일 것이다 · **end of the line** 끝장 · **ecological niche** 생태적소 · **bad is stronger than good** 나쁜 게 좋은 것보다 강하다

함정 장문 제목 = 결론 문장

장문은 **도입(치료·물고기)**이 길어 주제를 흐린다 — 제목은 **결론 문장**에 있다.

결론 — **One such principle is that bad is stronger than good.**

재진술 — 위협 반응이 **faster, stronger, harder to inhibit**

도입의 소재(치료·물고기)를 제목으로 착각하지 말고, **글이 도달한 원리(위협 민감)**를 담은 ㉣를 고른다.

3 · 지문 B — 버튼이 있다는 것만으로

A는 인식의 어긋남이 해가 되는 쪽이었다. B는 득이 되는 쪽이다 —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

2018.7 고3 학평 · 순서

정답률 55%

12문장 · 평균 14토큰

주어진 글 In classic experiments on stress, people performed tasks that required concentration, like solving puzzles, while being blasted at random intervals with **uncomfortably loud sounds**.

고전적인 스트레스 실험에서, 사람들은 불편할 만큼 큰 소리를 불규칙하게 들으면서 퍼즐 풀기처럼 집중이 필요한 과제를 했다.

(A) But here's what is: none of the participants actually pressed the button. Stopping the noise didn't make the difference ... **knowing they could stop the noise did.** The button gave them **a sense of control** and allowed them to **endure** the stress.

(B) If the noise became too unpleasant, they could **press a button** and make it stop. **Sure enough, the button** allowed them to stay calmer, make fewer mistakes, and show less irritation. **That's nothing surprising.**

(C) They started sweating and their heart rates and blood pressure climbed. **They** struggled to focus and made mistakes. Many got so frustrated that they gave up. **Searching for a way to reduce anxiety,** researchers gave **some of the participants an escape.**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순서를 정하는 법 (C)의 **They**가 주어진 글의 **people**을 받고, 끝에서 **an escape**(빠져나갈 길)를 꺼낸다. (B)의 **a button**이 바로 그 escape의 정체다. (A)의 **But here's what is**는 (B)의 **That's nothing surprising**과 짝을 이루는 반전이라 (B) 뒤여야 한다. 그래서 (C)-(B)-(A) — 정답 ⑤다.

순서의 근거 지시어와 접속 표현이 자리를 강제한다

이 지문은 **앞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말이 일곱 개나 박혀 있다.

표시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They started sweating (㉔) They struggled (㉔)	①의 people — 사람들이 등장한 뒤라야 They를 쓴다
Searching for a way to reduce anxiety (㉔)	②③④의 불안 증상 — 줄일 것이 이미 나와 있어야 한다

a button(㉔) → the button(㉔) — 관사만 봐도 순서가 정해진다. 순서 문항에서 가장 확실한 단서다. 처음 나올 때 **a/an**, 다시 나올 때 **the**.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① 28토큰 · 실험 설정

어디서	In classic experiments on stress, 스트레스에 관한 고전적 실험에서,
무엇이	people 사람들이
어떻다	performed tasks that required concentration, like solving puzzles, 퍼즐 풀기처럼 집중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했다,
~하는 동안	while being blasted at random intervals with uncomfortably loud sounds . 불규칙한 간격으로 불쾌하게 큰 소리를 얻어맞으면서.

조건이 들 스트레스를 만든 요소가 **둘**이다 — ① **집중이 필요한 과제**, ② **예측할 수 없는 소음(at random intervals)**.
특히 **random**이 중요하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통제 불가능성을 만들고, 그래서 뒤의 **버튼**이 의미를 갖는다. **여기를 잡아야 결론이**
납득된다.

②③④ 12 + 8 + 9토큰 · 몸의 반응

몸	They started sweating and their heart rates and blood pressure climbed . 그들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심박수와 혈압이 올랐다 .
수행	They struggled to focus and made mistakes. 집중하느라 애썼고 실수를 했다 .
포기	Many got so frustrated that they gave up . 많은 이가 너무 좌절해서 포기했다 .

세 문장이 계단이다 **몸 → 수행 → 포기**. 점점 심해지는 순서로 배열돼 있다. 실험 지문은 **결과를 이렇게 층으로 쌓아** 문제의 크기를 보인다.
so ~ that ...(너무 ~해서 ...하다)이 마지막 계단을 만든다. 그리고 이 셋이 있어야 ⑤의 **a way to reduce anxiety**가 나올 수 있다 —
줄일 것이 먼저 있어야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

①~④가 “문제”다. ⑤부터 “해결 시도”가 시작된다. 순서 문항에서 **문제 덩어리**와 **해결 덩어리**는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

복습 실험 지문 네 자리 — 소재만 바뀌고 뼈대는 그대로다

자리	이 지문에서
① 통제	모두 같은 과제 · 같은 소음 — 바뀐 건 버튼뿐
② 조작	some of the participants 에게만 버튼을 준다 (⑤)
③ 결과	침착 · 실수 감소 · 짜증 감소 (⑦) — ②③④를 하나씩 뒤집는다
④ 설명	버튼이 아니라 통제감 이 작동했다 (⑩⑪)

⑤⑥⑦ 17 + 17 + 20토큰 · 해결 시도와 결과

무엇을 하다가

Searching for a way to reduce anxiety,

불안을 줄일 방법을 찾다가,

어떻다

researchers gave **some of the participants an escape.**

연구자들은 일부 참가자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었다.

그게 뭔데

If the noise became too unpleasant, they could **press a button** and make it stop.

소음이 너무 불쾌해지면 버튼을 눌러 멈출 수 있었다.

결과

Sure enough, the button allowed them to **stay calmer, make fewer mistakes, and show less irritation.**

아니나 다를까, 그 버튼은 그들이 더 침착하고, 실수를 덜 하고, 짜증을 덜 내게 해주었다.

②③④와 짝을 맞춘다 ⑦의 결과가 ②③④를 하나씩 뒤집는다 — 땀·심박(②) → stay calmer, 실수(③) → fewer mistakes, 좌절·포기(④) → less irritation. 문제 목록과 해결 목록이 대응한다.
그리고 a button(⑤) → the button(⑥) — 관사가 순서를 못 박는다.

⑧⑨⑩ 5 + 6 + 9토큰 · 반전

여기가 이 글의 값

평가

That's nothing surprising.

그건 놀랍지 않다.

뒤집기

But here's what is: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이다:

무엇이

none of the participants actually pressed the button.

참가자 중 아무도 실제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세 문장이 24토큰 이 지문에서 가장 짧은 세 문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 긴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다.
here's what is는 here's what is surprising에서 surprising이 생략된 것이다. 앞 문장의 nothing surprising과 짝을 이루므로 반복을 피한 것 — 생략된 말은 바로 앞 문장에 있다.
그리고 글쓴이가 직접 “여기가 놀랍다”고 표시해 준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 문장이 주제다.

왜 이게 반전인가 실험의 진짜 설계

⑦까지만 보면 “버튼이 소음을 줄여 스트레스가 낮아졌다”로 읽힌다.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다.

예상 버튼 사용 → 소음 감소 → 스트레스 감소

→ 실제 버튼 미사용 → 소음 그대로 → 그런데 스트레스 감소

소음은 하나도 안 줄었다. 바뀐 건 “멈출 수 있다”는 앞뿐이다. 그래서 이 실험이 증명한 건 소음의 효과가 아니라 통제감의 효과다.

⑪ ⑫ 17 + 16토콘 · 결론

~가 아니라

Stopping the noise didn't make the difference ...

소음을 멈추는 것이 차이를 만든 게 아니다 ...

~가

knowing they could stop the noise did.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했다.

이름 붙이기

The button gave them a **sense of control** and allowed them to **endure** the stress.

그 버튼은 통제감을 주었고 스트레스를 견디게 했다.

did 하나가 문장 하나

⑩의 마지막 **did**는 **made the difference**를 대신한다. 풀어 쓰면 **knowing they could stop the noise made the difference**.대동사 do/does/did는 앞에 나온 동사구를 통째로 받는다. 여기서 **Stopping ~ didn't ... / knowing ~ did**가 정확히 맞서면서 행위(멈추기) ↔ 앎(알기)을 갈라 놓는다. 이 대비가 이 글의 결론이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blast	8	퍼붓다	① being blasted with sounds — 소리를 얻어맞다
interval	6	간격	① at random intervals 불규칙한 간격으로
concentration	6	집중	① — 스트레스를 만드는 조건 하나
frustrated	6	좌절한	④ so frustrated that ~ 포기의 직전 단계
participant	6	참가자	⑤⑩ — subject와 같은 뜻(앞 단원들)
rate	6	수치, 비율	② heart rates 심박수. 다른 문맥에선 '평가하다'(rate)였다
random	5	무작위의	① — 예측 불가가 스트레스의 핵심
anxiety	5	불안	⑤ — 줄이려는 대상
endure	5	견디다	⑩ — 결론어. 없애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
pressure	5	압력	② blood pressure 혈압. '압박감'이 아니다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irritation 짜증 · unpleasant 불쾌한 · uncomfortably 불편할 만큼 · a sense of control 통제감 · make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들다 · Sure enough 아니나 다를까 ·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같은 성질의 두 얼굴

	지문 A	지문 B
다루는 것	위협에 과민한 잠재의식	통제감과 스트레스
왜 그런가	진화적 비용 비대칭 먹이 농침 < 위협 농침	멈출 수 있다는 앎이 부담을 견디게 한다
결정적 한 줄	위협에도 기회만큼 강하게 반응하겠는가? No way	멈춘 게 아니라 멈출 수 있다는 앎이 바꿨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위험은 느낌으로 온다

	지문 A · 위협 민감	지문 B · 통제감
주제	bad > good	통제감이 완화
기제	진화(비용 비대칭) catastrophic	멈출 수 있다는 얇 sense of control
근거	물고기 사고실험	소음 버튼 실험
문항 열쇠	결론 문장(제목)	지시어·인과(순서)

A는 “위협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B는 “통제감이 두려움을 줄인다”고 한다. 둘 다 위험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으로 처리된다는 말이다 — 위협엔 과잉 민감하고(A), 통제감엔 안심한다(B). 지각이 위협의 크기를 정한다.

근거 제목·순서, 이렇게 본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제목(A)	장문은 결론 문장이 제목 — bad is stronger than good
순서(B)	지시어·인과 — 증상(C) → 버튼(B) → 반전(A) = (C)-(B)-(A)

제목은 “결론 문장”, 순서는 “지시어·인과”. 도입의 소재에 낡이지 않는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위협의 말	threats · bad is stronger · adaptive · catastrophic · natural selection · inhibit
통제의 말	sense of control · endure · button · irritation · unpleasant · calmer
숨은 뜻	catastrophic=치명적 · inhibit=억제하다 · adaptive=적응적
문항의 표지	제목=결론 문장 · 순서=지시어·인과

✓ 포식자를 놓치는 비용이 치명적이라 위협에 더 민감하게 진화(A).

✓ 장문 제목은 결론 문장 — bad is stronger than good.

✓ 멈출 수 있다는 얇(통제감)이 스트레스를 견디게 한다(B).

✓ 위험은 느낌으로 온다 — 위협 민감(A)과 통제감(B).

다음 단원 예고 — 고3편 UNIT 07로 이어진다. PART 1을 지나 PART 2 「지식은 어떻게 서는가」로 넘어간다.

과학은 대립과 소통 속에서 선다.

BEFORE

과학은 확립된 사실의 집합이고, 학자는 연구만 하면 된다 여긴다.

AFTER

두 지문은 과학의 사회적 성격을 본다. 과학자는 미디어에 나설지 선택하고(지문 A), 사회과학은 대립 속에 공통 기반을 찾는다(지문 B). 지식은 소통과 합의로 선다.

들어가기 고3편 PART 2의 첫 소재 — 지식의 사회성

지문 A는 과학자와 미디어다 — 말을 안 하면 안전하나, 책임감 있는 과학자에게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다. 미디어와 말하면 메시지를 알리고 인정을 받지만 오해·논쟁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미디어에 나설지는 매우 개인적인 선택이 된다. 지문 B는 사회과학의 특성이다 — 사회과학자는 자연과학자보다 합의가 어렵다 (경쟁하는 관점들). 그러나 실제로 연구에 들어가면 공통의 중간지대로 수렴한다.

A는 제목(장문), B는 문장삽입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4 수능 고3 · 제목(장문)	2025.5 고3 학평 · 문장삽입
정답률	58%	26%
무엇을 보나	과학자의 미디어 선택	사회과학의 합의
핵심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립 속 공통 기반
열쇠 표현	media · individualized · misquoted	competing perspectives · common ground

한 쌍이다 A는 “과학자는 미디어에 나설지 선택한다”, B는 “사회과학은 대립 속에 합의를 찾는다”고 한다. 둘 다 지식은 사회적 과정이라는 말 — 소통(A)과 합의(B) 속에서 지식이 선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과학자의 미디어 선택 (지문 A)

미디어에 말할지 말지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다.

침묵 — 과장 보도를 안 부추기나, 책임감 있는 과학자에겐 **비현실적**

말하기 — 메시지 전달·인정 vs 오해·반복 해명·끝없는 논쟁 위험

과거 — 미디어와 말하는 과학자는 **동료에게 비판받기도**

지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많은 과학자가 **책임감으로 발언**하고 주목을 즐기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인용 위험**에 미디어를 피하는 이들도 있다.

개념 2 사회과학의 합의 (지문 B)

사회과학은 자연과학보다 합의가 어렵다 — 그러나 결국 수렴한다.

물리학 — 격론해도 **충분한 합의**로 교과서가 권위 있게 서술

사회과학 — 입문서가 **경쟁하는 관점**들의 나열

대립 강조의 이점 — 해결해야 할 **쟁점**이 뚜렷해짐

선거의 정치인처럼 학파는 **차별화(clear blue water)**하려 하지만, 실제 **연구에 들어가면** (선전이 아니라) **공통의 중간지대로 되돌아온다**.

× 통념

○ 지문이 말하는 것

과학자는 연구만 하면 됨	미디어 소통도 선택 (A)
사회과학은 합의 불가	결국 공통 기반 으로 (B)
대립은 결함	쟁점을 뚜렷이 함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지식은 **사회적 과정**이다.” A는 **소통(미디어)**의 선택을, B는 **대립 속 합의**를 본다. 지식은 홀로가 아니라 소통·합의로 선다.

1 · 주제 어휘망 — 소통의 말과 합의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소통·미디어의 말**(media · individualized · misquoted)과 **대립·합의의 말**(competing perspectives · consensus · common ground). 둘 다 “**지식의 사회성**”이다.



두 지문이 “지식의 사회성”을 두 각도로 본다

	지문 A (고3)	지문 B (고3)
주제	미디어 선택	사회과학 합의
긴장	전달 ↔ 오해	대립 ↔ 수렴
결론	개인적 선택	공통 중간지대
문항 유형	제목(장문)	문장삽입 — In contrast

이 단원의 열쇠 대비 — A의 소통 ↔ 위험, B의 대립 ↔ 합의. 둘 다 “지식은 소통·합의로 선다”는 하나로 모인다.

2 · 지문 A — 미디어에 나설 것인가

2024 수능 고3 · 제목(장문)

정답률 58%

9문장 · 평균 24토큰

One way to avoid contributing to overhyping a story would be to **say nothing**. However,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for scientists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to inform the public and policymakers and/or to offer suggestions.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has advantages in **getting a message out** and perhaps receiving favorable recognition, but it runs the risk of **misinterpretations,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s, and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 Hence,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tends to be **highly individualized**. Decades ago, it was unusual for Earth scientists to have results that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 and consequently few media contacts were expected or encouraged. In the 1970s, the few scientists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 were often **criticized by their fellow scientists** for having done so.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as many scientists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out**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and related issues, and many reporters share these feelings. In addition, many scientists are finding that they **enjoy the media attention an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comes with it**. At the same time, other scientists continue to **resist speaking with reporters**, thereby preserving more time for their science and avoiding the risk of being **misquoted and the other unpleasantries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The Troubling Relationship Between Scientists and the Media
- ㉡ **A Scientist's Choice: To Be Exposed to the Media or Not?**
- ㉢ Scientists! Be Cautious When Talking to the Media
- ㉣ The Dilemma over Scientific Truth and Media Attention
- ㉤ Who Are Responsible for Climate Issues, Scientists or the Media?

제목을 정하는 법 글은 “미디어와 말할지 말지”의 양면(장점 vs 위험)을 견주고, “매우 개인적인 선택”이라 맺는다. 어떤 이는 발언하고 어떤 이는 피한다 — 과학자의 “선택”이 주제 → 정답 ㉡.

왜 ㉡인가 양면 + individualized = 선택

장점 — 메시지 전달·인정 / 위험 — 오해·논쟁·오인용

결론 — **highly individualized**(매우 개인적)

발언하는 이 ↔ 피하는 이 → “나설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

→ ㉡ A Scientist's Choice: To Be Exposed or Not?

규칙 하나 — 장단점을 대등하게 견주고 “개인차”로 맺으면 주제는 “선택/딜레마”다. ㉠(주의하라)·㉣(진실 vs 주목)는 한쪽만 담아 오답.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② ③ ④ 말할 것인가 — 양면 **쟁점**

그러나

Saying nothing avoids overhype, **but is not realistic** for responsible scientists.

침묵은 과장을 피하나, 책임감 있는 과학자에겐 **비현실적**이다.

장점·위험

Speaking has **advantages**(message, recognition) but **risks**(misinterpretation, controversy) → decision is **highly individualized**.

발언은 **장점**(전달·인정)과 **위험**(오해·논쟁)이 있어 — 결정이 매우 개인적이다.

advantages ... but risks ... individualized — 제목의 축 **장점과 위험을 대등하게 놓고 “개인적 선택”으로 맺는다.** 이 양면 구조가 제목 ②(선택)의 근거다.

⑤ ⑥ ⑦ ⑧ ⑨ 과거 → 현재 → 갈림 **전개**

변화

Decades ago few spoke (even criticized); now many **speak out**(global warming) and enjoy attention, **while others resist** being misquoted.

과거엔 드물었고 비판도 받았으나, 지금은 많은 이가 **발언**하고 주목을 즐긴다 — **반면 어떤 이는 피한다**(오인용 회피).

many ... while others — 갈리는 선택 **발언하는 과학자 ↔ 피하는 과학자로 갈린다.** 정답 없는 **개인의 선택**임을 보여 준다 — 제목이 “선택(②)”인 이유다.

전체 양면을 견주는 구조 **제목****구조**침묵(비현실) → 발언의 장점·위험 → **individualized** → 발언파 ↔ 회피파

글은 어느 쪽도 “정답”이라 하지 않고, 과학자마다 다른 선택임을 보여 준다 — 제목은 그 “선택”을 답아야 한다.

or Not? — 선택의 제목제목 ②의 “**To Be Exposed to the Media or Not?**”가 글의 양면 구조를 그대로 담는다 — 노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정제** 고3 58% — 한쪽만 담은 오답

- ① 과학자-미디어의 불편한 관계 — 관계가 아니라 선택이 주제
- ③ 주의하라 — 위험만 담아 한쪽으로 치우침
- ④ 진실 vs 주목의 딜레마 — 그럴듯하나 글은 “진실”이 아니라 “소통 여부”
- ② 노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양면 + **individualized** = 정답

규칙 하나 — 제목은 글의 “범위”와 맞아야 한다. 너무 좁은(③ 주의) 또는 빗나간(④ 진실) 선택지를 피하고, 양면을 담은 ②를 고른다.

한 줄로

미디어와 말하는 것은 전달·인정의 장점과 오해·논쟁의 위험을 함께 지녀, 나설지 말지는 과학자마다 다른 개인적 선택이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미디어·소통의 말이 축이다 — **media · individualized · misquoted**. 제목은 양면 + 개인적 선택이 정한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individualized	③	개인마다 다른	④ highly individualized — 제목(선택)의 열쇠
overhype	②	과대 선전하다	① overhyping a story 과장 보도
clarification	④	해명	③ repeated clarifications 반복된 해명
entanglement	③	얽힘, 연루	③ entanglement in controversy 논쟁에 얽힘
speak out	⑤	공개 발언하다	⑦ responsibility to speak out 발언할 책임
misquote	③	잘못 인용하다	⑥ risk of being misquoted 오인용 위험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contribute to -ing ~에 기여하다 ·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do** ~할 책임감 · **run the risk of** ~ ~의 위험을 무릅쓰다 · **never-ending controversy** 끝없는 논쟁 · **tend to be** ~ ~한 경향이 있다 · **be of interest to** ~ ~에게 흥미롭다 · **fellow scientists** 동료 과학자 · **at the same time** 동시에

▶ 함정 제목 = 글의 “범위”에 맞아야

장문 제목은 너무 좁거나 빗나간 오답이 매력적이다.

③ 주의하라 — 위험만(한쪽) → 양면 글과 안 맞음

④ 진실 vs 주목 — “진실”은 글의 초점이 아님(소통 여부가 초점)

글이 장점·위험을 대등하게 놓고 “개인적 선택(individualized)”으로 맺으므로, 제목도 양면의 선택(②)이어야 한다.

3 · 지문 B — 사회과학은 왜 합의가 안 되는가

A가 “왜 못 해냈나”였다면 B는 “왜 하나로 안 모이나”다. 그리고 B는 모이지 않는 것이 걸보기라고 말한다.

2025.5 고3 학평 · 문장 삽입

정답률 26%

7문장 · 평균 25토큰

Social scientists find it harder to agree than do natural scientists. ㉠ Researchers at the leading edge of physics, for example, may argue fiercely, **but** there is **sufficient consensus** among the discipline’s scholars for an introductory physics textbook to **state with authority** the basic knowledge that is accepted by the field. ㉡ ㉢ There are benefits to **stressing what divides us**. By taking specific emphases to their logical conclusions, we can readily perceive the arguments that need to be resolved if we are to explain this or that aspect of the social world. ㉣ **Like politicians in elections**, advocates of particular schools try to put ‘**clear blue water**’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rivals. ㉤ **But, like politicians in power**, when the same advocates get round to **doing sociology** (rather than just **advertising their brand** of it) they tend to **fall back to a common middle ground**.

주어진 문장 In contrast, introductory social science texts often describe their subjects as **a series of competing perspectives**.

반면에, 사회과학 입문 교재는 흔히 그 대상을 일련의 경쟁하는 관점들로 서술한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리를 정하는 법 대비어 + 선행사 없는 말

단서가 둘이다.

1 주어진 문장의 In contrast — 대비할 앞이 있어야 한다. ㉡의 물리학은 합의가 있다가 그것이다

→ 2 ㉣의 what divides us(우리를 나누는 것) — 나누는 것이 앞에 나와야 쓴다. 그게 competing perspectives다

빠 보면 확인된다. ㉡ 물리학은 합의가 있다 → ㉣ 나누는 것을 강조하면 이점이 있다 — 무엇이 나누는지가 없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대비도 서고 선행도 생긴다.

왜 26%인가 단서가 둘이나 있는데도 정답률이 낮다. 지문 자체가 안 읽히기 때문이다 — ㉡가 44토큰이고, ㉢㉣은 정치 비유다. 문장을 못 읽으면 단서도 안 보인다.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① 12토큰 · 비교 도치

무엇이

Social scientists

사회과학자들은

어떻다

find it harder to agree **than do natural scientists**.

자연과학자들보다 합의하기가 더 어렵다고 느낀다.

than do ~ **than do natural scientists** — **than + 조동사 + 주어로** 도치됐다. 원래는 **than natural scientists do**. **do**는 **find it harder to agree**를 받는다.

비교 구문에서 **than** 뒤가 도치되는 것은 흔하다. **than do / than does / than did**가 보이면 뒤가 주어다.

② 44토큰 · parsing_core 0.86 — 이 지문 최장

무엇이

Researchers at the leading edge of physics, for example,

예컨대 물리학 최전선의 연구자들은

어떻다

may **argue fiercely**,

맹렬히 논쟁할 수도 있다,

그러나

but there is **sufficient consensus** among the discipline's scholars

그러나 그 학문 분야 학자들 사이에는 충분한 합의가 있다

얼마나 충분한가

for an introductory physics textbook **to state with authority** the basic knowledge that is accepted by the field.

입문 물리학 교재가 그 분야가 인정하는 기본 지식을 권위 있게 진술할 만큼.

44토큰의 뼈대는 셋 **may argue fiercely, but there is sufficient consensus ... for ... to state ~**

① **may ~ but**이 큰 뼈대다 — 논쟁은 해도 합의는 있다.

② **sufficient ~ for A to B**가 한 덩어리 — “A가 B할 만큼 충분한”. **for an introductory physics textbook**이 **to state**의 의미상 주어다.

③ 나머지(**at the leading edge of physics, among the discipline's scholars, that is accepted by the field**)는 전부 수식이다. 지우면 20토큰이 된다.

③ 18토큰 · 대비 **삽입 문장**

뒤집기

In contrast,

반면에,

무엇이

introductory social science texts

사회과학 입문 교재는

어떻다

often describe their **subjects** as **a series of competing perspectives**.

흔히 그 대상을 일련의 경쟁하는 관점들로 서술한다.

두 교과서를 맞세운다 ②의 **an introductory physics textbook**과 ③의 **introductory social science texts** —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한다.

물리학 교재는 “이것이 기본 지식”, 사회과학 교재는 “이런 관점들이 다툰다”. 교과서의 문장 모양이 학문의 상태를 드러낸다.

④⑤ 9 + 34토큰 · 나뉘는 것의 이점

주장	There are benefits to stressing what divides us . 우리를 나누는 것을 강조하는 데 이점이 있다.
어떻게 하면	By taking specific emphases to their logical conclusions , 특정 강조점을 논리적 끝까지 밀고 감으로써,
어떻다	we can readily perceive the arguments that need to be resolved 해결해야 할 논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하려면	if we are to explain this or that aspect of the social world. 사회 세계의 이런저런 측면을 설명하려면 말이다.

뜻밖의 방향 ①~③은 “사회과학은 합의가 안 된다”였다. 그런데 ④가 갑자기 그게 이점이라고 한다. 단점처럼 보이던 것을 장점으로 뒤집는 자리다.

논리는 이렇다 — 각 학파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야 무엇이 진짜 쟁점인지 드러난다. 대립이 문제를 선명하게 만든다.

if we are to ~는 “~하려는 것이라면”이다. **be to** 용법 중 의도다.

⑥⑦ 23 + 37토큰 · 정치 비유로 달는다 **결론**

~처럼	Like politicians in elections , 선거철 정치인처럼,
무엇이	advocates of particular schools 특정 학파의 옹호자들은
어떻다	try to put ' clear blue water '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rivals. 자기와 경쟁자 사이에 확연한 차이 를 두려 한다(clear blue water).
뒤집기	But, like politicians in power , 그러나 집권한 정치인처럼,
언제	when the same advocates get round to doing sociology (rather than just advertising their brand of it) 그 같은 옹호자들이 (자기 브랜드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학을 할 때는
어떻다	they tend to fall back to a common middle ground . 공통의 중간 지대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다.

비유가 두 짝이다 **in elections ↔ in power**(선거 때 ↔ 집권 후)가 한 짝, **advertising their brand ↔ doing sociology**(선전 ↔ 실제 연구)가 또 한 짝이다.

말할 때는 갈라서고, 할 때는 모인다. 이게 결론이다. ⑥의 “나뉘는 게 이점”도 말하는 국면의 이야기였음이 여기서 밝혀진다.

get round to -ing = (미루다가) 실제로 ~하기에 이른다. 영국식 표현이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consensus	8	합의	② sufficient consensus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가르는 말
sociology	8	사회학	⑦ doing sociology — 말하기가 아니라 하기
subject	7	다루는 대상	③ — ‘주제·과목’이 아니다. 앞서 본 것과 세 번째
readily	7	쉽게	⑤ — 앞서 본 것과 같은 단어
advocate	6	옹호자	⑥⑦ — 학파를 대변하는 사람
emphasis	6	강조(점)	⑤ specific emphases — 복수형 emphases
scholar	6	학자	② the discipline's scholars
discipline	5	학문 분야	② — ‘규율·훈육’이 아니다. = field
state	5	진술하다 (동사)	② state with authority 권위 있게 진술하다
perspective	5	관점	③ competing perspectives — 삽입 문장의 열쇠말
resolve	5	해결하다	⑤ arguments that need to be resolved
sufficient	5	충분한	② sufficient ~ for A to B 틀의 시작
knowledge	5	지식	② — 핵심어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introductory 입문의 · **fiercely** 맹렬히 · **at the leading edge of ~** ~의 최전선에 · **clear blue water** 확연한 입장 차이 · **get round to -ing** (마침내) ~하기에 이르다 · **fall back to ~** ~로 물러나다 · **brand** (여기서) 자기 학파의 간판

▶ **함정** 같은 단어가 UNIT마다 다른 뜻으로 나온다

subject는 이 교재에서 세 번째다. 나올 때마다 뜻이 달랐다.

앞선 지문 → 피험자 (실험 지문)

여기 → 다루는 대상 (학문 지문) — describe their **subjects** as ~

일반 → 주제 · 과목 · (문법의) 주어

지문의 종류가 뜻을 정한다. 실험이 나오면 피험자, 학문 이야기면 대상. 단어를 문맥과 함께 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지식은 사회적 과정이다

	지문 A · 소통	지문 B · 합의
주제	미디어 선택	대립 속 합의
긴장	전달 ↔ 오해 individualized	대립 ↔ 수렴 common ground
결론	개인적 선택	공통 중간지대
문항 열쇠	양면 + 개인차(제목)	In contrast 자리(삽입)

A는 “과학자는 미디어에 나설지 선택한다”, B는 “사회과학은 대립 속에 합의를 찾는다”고 한다. 둘 다 지식은 홀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으로 선다는 말이다 — 소통(A)과 합의(B)를 거쳐, 지식은 공적 세계에서 자리를 얻는다.

근거 제목·문장삽입, 이렇게 푼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제목(A)	양면을 대등하게 + 개인차로 맺으면 “선택/딜레마”가 제목
문장삽입(B)	In contrast가 들어갈 대비 자리 — 물리학(합의) ↔ 사회과학(대립)

제목은 “글의 범위”, 삽입은 “대비의 자리”. 한쪽만 담은 오답에 낚이지 않는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소통의 말	media · individualized · misquoted · overhype · clarification · speak out
합의의 말	competing perspectives · common ground · consensus · discipline · advocates
숨은 뜻	individualized=개인마다 다른 · misquote=오인용 · common ground=공통 기반
문항의 표지	제목=글의 범위 · 삽입=대비의 자리

- ✓ 미디어에 나설지는 개인적 선택 — 장점(전달)과 위험(오해)의 양면(A).
- ✓ 제목은 글의 범위 — 양면+개인차면 “선택(②)”.
- ✓ 사회과학은 대립 속에 공통 기반을 찾는다(B).
- ✓ 지식은 사회적 과정 — 소통(A)과 합의(B)로 선다.

다음 단원 예고 — 고3편 UNIT 08로 이어진다. PART 2 「지식은 어떻게 서는가」의 다음 장면을 본다.

이성이 감각을 넘어선다.

BEFORE

지식은 보고 들은 것에서 오고, 권위가 진리를 정한다 여긴다.

AFTER

두 지문은 이성적 지식의 전통을 본다. 근대 과학은 권위 대신 증거·이성으로 서고(지문 A), 플라톤 이래 이성이 감각을 넘어 진리를 잡는다(지문 B). 지식의 근거는 이성이다.

들어가기 고3편 PART 2의 둘째 소재 — 이성과 지식

지문 A는 근대 과학의 탄생이다 — 근대 유럽 철학·과학은 권위·전통이 아니라 증거에 이론을 맞추는 데서 앞 시대와 갈라진다. Galileo·Bacon·Descartes는 이성(‘자연의 빛’)과 경험에서 출발해 과학적 방법을 세웠다. 지문 B는 플라톤의 이성이다 — 서양 철학은 감각·지각과 이성적 지식을 구분해 왔다. 감각은 오류·착각에 빠지나, 이성만이 진리를 가리킨다. 멀리 있는 형상이 작아 보여도, 진실은 지각이 아니라 이성적 재현에 있다.

A는 무관한 문장, B는 빈칸[3점]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2.4 고3 학평 · 무관한 문장	2023.6 고3 학평 · 빈칸[3점]
정답률	60%	35%
이성의 역할	권위→증거·이성	감각을 넘어 진리
근거	Galileo·Bacon·Descartes	플라톤·원근법 예시
열쇠 표현	evidence · reason · authority	rational knowledge · illusions · representation

한 쌍이다 A는 “근대 과학은 권위 대신 증거·이성으로 선다”, B는 “이성이 감각을 넘어 진리를 잡는다”고 한다. 둘 다 지식의 근거는 이성이라는 말 — 권위(A)든 감각(B)든, 이성이 그것을 넘어선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근대 과학 — 권위에서 증거로 (지문 A)

근대 유럽 과학은 “증거에 이론을 맞추는” 데서 앞 시대와 갈라졌다.

이전 — 권위·전통·종교 교리가 진리의 기준

Galileo·Bacon·Descartes — 옛 사상가의 선언에 기대지 않음

대신 이성(‘자연의 빛’)과 경험에서 출발

연역이든 경험 데이터든, 근대 과학적 방법은 **이성과 증거에 비추어 이론을 검증한다** — 권위가 아니라 증거·이성이 지식을 세운다.

개념 2 플라톤 — 이성이 감각을 넘는다 (지문 B)

서양 철학은 감각 지각과 이성적 지식을 구분해 왔다.

플라톤 이래 — 이성이 **경험에서 진리를 뽑아낸다**

감각은 오류·착각에 빠짐 → 신뢰할 수 없음

이성만이 착각을 이기고 **진리를 가리킨다**

예 — 멀리 있는 형상은 **작아 보인다**. 원근법을 보정해도 여전히 작아 보이지만, 진실은 **지각이 아니라 이성적 재현**에 있다.

×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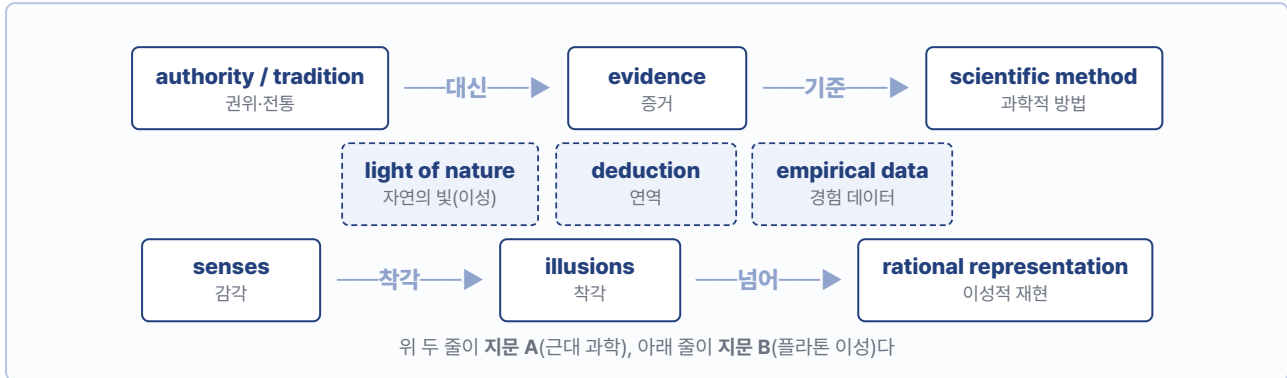
○ 지문이 말하는 것

권위가 진리 를 정함	증거·이성 이 정함 (A)
본 대로가 진실	감각은 착각 한다 (B)
보정하면 바로 보인다	여전히 작아 보임 → 이성 이 진실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지식의 근거는 이성이다.” A는 권위 대신 증거·이성, B는 감각을 넘는 이성을 본다. 이성이 권위·감각을 넘어 진리를 세운다.

1 · 주제 어휘망 — 증거의 말과 이성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증거·근대의 말(evidence · reason · authority)과 이성·감각의 말(rational knowledge · illusions · representation). 둘 다 “이성적 지식”이다.



두 지문이 “이성적 지식”을 두 시대로 본다

	지문 A (근대)	지문 B (플라톤)
이성 vs	권위·전통	감각·착각
근거	Galileo·Bacon	원근법 예시
결론	증거로 검증	이성적 재현에 진실
문항 유형	무관한 문장 — ㉔ 이탈	빈칸[3점] — truth revealed ____

이 단원의 열쇠 대비 — A의 권위 → 이성, B의 감각 → 이성. 둘 다 “이성이 근거다”는 하나로 모인다.

2 · 지문 A — 권위에서 증거로

2022.4 고3 학평 · 무관한 문장

정답률 60%

5문장 + 무관 1 · 평균 28토큰

What characterizes philosophy and science in early modern Europe and marks a break from earlier traditions is the concern to **tailor theories to evidence rather than authority or tradition**. ㉠ Galileo Galilei, Francis Bacon, Rene Descartes, and others formulated explanations of the heavens, of the natural world around them, and of human nature and society **not by appealing to the proclamations of earlier thinkers**. ㉡ Nor were **religious principles and ecclesiastic dogma** their guiding lights. ㉢ Rather, they took their lead from **reason — what some thinkers called “the light of nature” — and experience**. ㉣ The fierce debates on the superiority of reason or experience continued, but all serious thinkers ultimately abandoned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philosophy. ㉤ Whether they proceeded according to the logic of deduction or through the analysis of empirical data, the modern scientific method they developed consists in **testing theories according to reason and in light of the available evidence**.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① ㉠

② ㉡

③ ㉢

④ ㉣

⑤ ㉤

무관 문장 찾는 법

글의 한 줄기는 “근대 과학은 이성과 경험(증거)에서 출발한다”이다. 그런데 ㉠은 “경험을 버리고 순수 이성만 택했다” — 이성과 경험을 함께 쓴다는 흐름과 정반대다. 정답 ㉣.

왜 ㉣인가 흐름은 “이성+경험”, ㉣는 “경험 버림”

주제 — 권위 대신 **이성과 경험(증거)**㉢ — reason(자연의 빛) **and experience**에서 출발

㉤ — deduction이든 empirical data든 이성·증거로 검증

㉣ — **경험을 버리고 순수 이성만** ← 정반대(둘을 함께 쓰는데)

규칙 하나 — 무관 문장은 논지 방향으로. 글은 **reason+experience**인데 ㉣만 “**experience 버림**” — ㉢→㉤가 자연스럽고 ㉣가 된다.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주제·㉠㉡ 권위가 아니라 증거 전반

가른다

Early modern science broke from tradition by **tailoring theories to evidence rather than authority**.

근대 과학은 권위가 아니라 증거에 이론을 맞추며 전통과 결별했다.

누가

Galileo, Bacon, Descartes explained the world **not by appealing to earlier thinkers, nor by religious dogma**.

Galileo·Bacon·Descartes는 옛 사상가·종교 교리에 기대지 않고 세계를 설명했다.

not authority, not dogma — 무엇을 버렸다

험.

근대 과학은 권위·전통·종교를 버렸다. 그럼 무엇에서 출발했나? — ㉠가 답한다: 이성과 경

㉢·㉣ 이성과 경험에서 주제 확증

대신에

Rather, they took their lead from **reason ("the light of nature") and experience**; the method tests theories by **reason and evidence**.

대신 이성('자연의 빛')과 경험에서 출발했다 — 이론을 이성과 증거로 검증하는 방법.

reason AND experience — 흐름의 핵심

핵심은 이성과 경험을 "함께" 쓴다는 것이다. 이 흐름을 깨는 문장(㉣: 경험을 버림)이 무관 문장이다.

㉔ 흐름을 깨는 문장 **무관****이탈**

The fierce debates on reason or experience continued, but all serious thinkers ultimately **abandoned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philosophy.**

이성 대 경험 논쟁이 이어졌으나, 진지한 사상가는 결국 근대 과학·철학의 전개에서 경험을 버렸다. (주제: 둘을 함께 쓴다와 정반대)

왜 무관한가 글은 “이성 and 경험”으로 검증한다고 한다(㉔, ㉔). 그런데 ㉔는 “경험을 버렸다” — 정면 모순이다. 같은 reason·experience 단어를 쓰지만 **방향**이 반대다.

정체 고3 60% — 같은 단어라 헛갈린다

㉔도 reason·experience·thinkers 등 같은 소재어 → “관계있어 보임”(함정)

그러나 **방향** 반대 — 글은 “둘 다”, ㉔는 “경험 버림”

결정타 — ㉔가 empirical data(경험)도 쓴다고 해 ㉔와 충돌

규칙 하나 — 무관 문장은 단어가 아니라 논지 방향으로. “이성+경험” 글에서 “경험을 버렸다”가 나오면 그것이 이탈이다.

한 줄로 근대 과학은 권위·종교가 아니라 이성과 경험(증거)에서 출발해 이론을 검증한다 — ㉔의 “경험을 버렸다”만 흐름을 깬다.

2-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이 지문은 **증거·이성**의 말이 축이다 — **evidence · reason · authority**. 무관 문장은 **논지 방향(이성+경험 ↔ 경험 버림)**으로 가른다.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evidence	6	증거	㉠㉡ tailor theories to evidence — 근대의 기준
authority	6	권위	㉠ rather than authority or tradition 권위 대신
proclamation	3	선언	㉢ proclamations of earlier thinkers 옛 선언
dogma	3	교리	㉢ ecclesiastic dogma 교회의 교리
deduction	4	연역	㉢ logic of deduction 연역의 논리
empirical	4	경험적인	㉢ empirical data 경험 데이터

코퍼스 미등재 · 덩어리로 외울 것

mark a break from ~ ~와의 단절을 이루다 · **tailor A to B** A를 B에 맞추다 · **appeal to** ~ ~에 호소하다 · **guiding light** 인도하는 빛 (지침) · **take one's lead from** ~ ~에서 출발하다 · **the light of nature** 자연의 빛(이성) · **in light of** ~ ~에 비추어 · **consist in** ~ ~에 있다

합정 무관 문장 = 같은 단어의 “반대 주장”

고3 무관 문장은 **같은 소재어로 반대 주장**을 만들어 헛갈리게 한다.

글 — reason **and** experience(둘 다)

㉠ — abandoned experience(경험 버림) ← 반대

단어(reason-experience)만 보면 관계있어 보이지만, **주장의 방향**이 반대다. 앞뒤(㉢→㉢)가 “둘 다”로 이어지므로 ㉠가 이탈이다.

3 · 지문 B — 감각은 고쳐도 그대로다

A가 이성이 등장한 순간이었다면, B는 그 이성이 왜 감각보다 위인가를 논증한다.

2023.6 고3 모평 · 빈칸 [3점]

정답률 35%

7문장 · 평균 25토큰

One of the common themes of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is **the distinction between sensual perceptions and rational knowledge**. Since Plato, the **supremacy of rational reason** is based on the assertion that it is able to **extract true knowledge from experience**. As the discussion in **the Republic** helps to explain, perceptions are **inherently unreliable and misleading** because the senses are **subject to errors and illusions**. **Only the rational discourse** has the tools to **overcome illusions** and to point towards true knowledge. For instance, perception suggests that a figure in the distance is smaller than it really is. **Yet**, the application of **logical reasoning** will reveal that the figure **only appears small** because it obeys **the laws of geometrical perspective**. **Nevertheless, even after** the perspectival correction is applied and reason concludes that perception is misleading, the figure **still appears small**, and the truth of the matter is revealed _____.

* discourse: 담화 ** geometrical: 기하학의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s the outcome of blindly following sensual experience
- ② by moving away from the idea of perfect representation
- ③ beyond the limit of where rational knowledge can approach
- ④ through a variety of experiences rather than logical reasoning
- ⑤ not in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

빈칸의 근거 바로 앞 still 하나가 답을 정한다

the figure still appears small — 이성이 “착시다”라고 결론까지 낸 뒤에도 여전히 작게 보인다. 감각은 설득되지 않는다.

그러니 참은 보이는 쪽에 있을 수 없다 → **not in the perception**

→ 참은 따져서 세운 쪽에 있다 →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

그리고 이 문장은 ①의 **the distinction between sensual perceptions and rational knowledge**를 그대로 되받는 다. 첫 문장이 세운 대립을 마지막 문장이 닫는다 — 빈칸은 그 닫는 자리다.

오답은 왜 그럴듯한가

선택지	왜 끌리는가 · 왜 아닌가
③	이성이 닿을 수 있는 한계 너머 — 가장 위험한 오답. “여전히 작게 보인다”를 이성의 패배로 읽으면 여기 걸린다. 그러나 지문은 이성이 이겼다고 한다. 방향 뒤집힘
④	논리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 지문 전체가 경험을 못 믿는다고 했다. 정반대. 방향 뒤집힘
①	감각 경험을 맹목적으로 따른 결과 — 감각이라는 말에 끌린다. 그러나 빈칸은 참이 어디 있는가를 말하는 자리다. 초점 어긋남

3-1 · 의미론적 끊어읽기

①② 20 + 24토큰 · 대립을 세운다

무엇이

One of the common themes of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서양 철학 전통의 공통 주제 하나는

어떻다

is **the distinction between sensual perceptions and rational knowledge.**

감각적 지각과 이성적 지식의 구분이다.

언제부터

Since Plato,

플라톤 이래로,

어떻다

the **supremacy of rational reason** is based on the assertion

이성의 우위는 다음 주장에 근거한다

그게 뭔데

that **it is able to extract true knowledge from experience.**

이성이 경험에서 참된 지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주장.

첫 문장이 지도다 **the distinction between A and B** — 이 글은 **A와 B를 가르는 이야기**라고 스스로 선언한다. 남은 여섯 문장은 전부 이 대립의 설명이다.

그리고 **extract true knowledge from experience**가 중요하다 — 이성이 **경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뽑아낸다고** 했다. 앞서 본 **extract abstract rules**와 같은 동사다.

③④ 26 + 17토큰 · 왜 감각은 못 믿나

어디서 보듯

As the discussion in **the Republic** helps to explain,

『국가』의 논의가 설명해 주듯,

어떻다

perceptions are **inherently unreliable and misleading**

지각은 본질적으로 못 믿을 것이고 오도한다

왜

because the senses are **subject to errors and illusions.**

감각이 오류와 착각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오직

Only the rational discourse has the tools to **overcome illusions** and to point towards true knowledge.

오직 이성적 논의만이 착각을 이겨낼 도구를 갖고 참된 지식을 가리킨다.

Only의 무게 **Only**가 붙으면 배타적 주장이 된다 — “**이성만이**”. 감각은 아예 자격이 없다는 말이고, 그래서 뒤의 예시가 **감각의 실패**를 보인다.

be subject to ~는 “~에 노출돼 있다 · ~을 당하기 쉽다”다. **subject**가 여기서는 또 다른 뜻이다 —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였다. 앞선 지문 피험자 · 앞선 지문 대상 · 여기 “~하기 쉬운” — 이제 셋째다.

⑤⑥ 18 + 24토큰 · 착시와 그 교정

예를 들면

For instance, perception suggests that a figure in the distance **is smaller than it really is**.예컨대 지각은 멀리 있는 형체가 **실제보다 작다고** 말해 준다.

그러나

Yet, the application of **logical reasoning** will reveal

그러나 논리적 추론을 적용하면 드러난다

그게 뭔데

that the figure **only appears small** because it obeys **the laws of geometrical perspective**.

그 형체는 기하학적 원근법을 따르기 때문에 작아 보일 뿐이라는 것이.

appears ↔ really is

⑤에 **is smaller than it really is**가 있다 — 보이는 크기와 실제 크기를 이미 갈라 놓았다.⑥의 **only appears small**은 “작아 보일 뿐 작지 않다”다. **only**가 **appears**에 붙어 의미를 뒤집는다. **appear**를 “나타나다”로 읽으면 이 문장이 통째로 무너진다.

⑦ 44토큰 · 이 지문 최장

빈칸

그럼에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뒤에도

even after the perspectival correction is applied and reason concludes that perception is misleading,

원근 보정을 마치고 이성이 “지각은 오도한다”고 결론까지 낸 뒤에도,

무엇이

the figure **still appears small**,

그 형체는 여전히 작게 보이고,

그래서

and **the truth of the matter is revealed not in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

진실은 형체를 본 것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이성적 재현에서 드러난다. ← 빈칸 정답 ⑥

44토큰의 빠대는 셋

Nevertheless, even after ~, the figure still appears small, and the truth is revealed ~.① **even after**절이 “할 만큼 다 했다”를 깬다 — 보정도 했고 결론도 냈다.② **still**이 그 노력을 **무효로** 만든다 — 그래도 안 바뀐다.③ 그래서 **결론**이 나온다 — 참은 감각 쪽이 아니라 이성 쪽에 있다.**Nevertheless**와 **still**이 한 문장에 같이 있으면 ①②③ 구조를 의심한다.

정체 정답률 35%가 여기서 나온다

① **still**을 흘린다. 이 한 단어가 빈칸의 근거 전부다. **고쳐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참이 감각 쪽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② “여전히 작게 보인다”를 이성의 패배로 읽는다. 그러면 ⑥(이성의 한계 너머)에 걸린다. 그러나 지문은 **이성이 진실을 밝혀** 냈다고 한다 — 진 건 감각이다.③ 첫 문장을 읽는다. ①이 **the distinction between sensual perceptions and rational knowledge**를 세워 놓았고, 빈칸은 그 대립을 **그대로 되받는** 자리다. 정답 ⑥가 **not in the perception ...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으로 같은 두 향을 쓴다.

3-2 · 지문 결정 어휘 — 고3 코퍼스 기준

단어	랭크	뜻	이 지문에서의 쓰임
misleading	8	오도하는	㉓㉔ 2회 — 감각에 붙는 판정
subject	7	~에 노출된 (형용사)	㉓ be subject to ~ — 앞서 본 것과 또 다른 뜻
illusion	7	착각	㉓㉔ — 감각이 겪는 것 / 이성이 이기는 것
discourse	7	논의, 담론	㉔ rational discourse — ‘대화’보다 따지는 말
extract	7	뽑아내다	㉔ — 앞서 본 것과 같은 동사. 경험에서 지식을 뽑는다
figure	6	형체	㉓㉔㉕ 3회 — ‘숫자·인물’이 아니다
distinction	6	구분	㉑ — 첫 문장의 열쇠말
representation	6	재현, 표상	㉕ rational representation — 빈칸 정답의 핵심
perception	6	지각	㉑㉓㉔㉕ 4회 — 앞서 본 것과 같은 열쇠말
reason	6	이성	㉔㉕ — ‘이유’가 아니다. 핵심어
obey	5	따르다	㉖ obeys the laws of ~ 법칙을 따른다
reveal	5	드러내다	㉖㉕ — 이성이 하는 일

코퍼스 미등재 — 사전 없이는 못 읽는 것

supremacy 우위·최고 · **sensual** 감각의 · **assertion** 주장 · **inherently** 본질적으로 · **unreliable** 못 믿을 · **geometrical** 기하학의 · **perspectival** 원근의 · philosophical 철학의

▶ **함정** subject가 이 교재에서 네 번째다 — 뜻이 또 다르다

앞선 지문 → 피험자 (명사) 실험 지문

앞선 지문 → 다루는 대상 (명사) 학문 지문

여기 → ~에 노출된 (형용사) **be subject to** ~ 꼴로만 쓰인다

형태로 구분된다. **be subject to**가 통째로 보이면 형용사고, **the subjects**처럼 관사·복수가 붙으면 명사다. 덩어리로 위
우면 헷갈릴 일이 없다 — **be subject to**(~을 당하기 쉽다).

▶ **읽기** PART 1의 UNIT 05와 나란히 놓아 본다

같은 결론에 2400년 간격으로 도달했다.

	UNIT 05 (지각)	UNIT 08 (논증)
방법	색을 바꾸고 가격표를 붙인다	착시를 놓고 따져 본다
결과	전문가도 속는다 · 뇌가 다르게 반응한다	보정 뒤에도 여전히 작게 보인다
결론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perceptions are inherently unreliable

UNIT 05의 **construction**(지각은 구성물)은 UNIT 08의 **inherently unreliable**과 짝이다. **rational representation**은 그 반대 극 — 지각을 넘어서는 이성이다.

4 · 다시 만나기

한 줄로 두 지문을 겹쳐 보면 — 지식의 근거는 이성이다

	지문 A · 근대 과학	지문 B · 플라톤
이성 vs	권위·전통	감각·착각
근거	증거에 이론을 reason and experience	원근법 예시 rational representation
결론	증거로 검증	이성적 재현에 진실
문항 열쇠	논지 방향(무관 문장)	결론의 재진술(빈칸)

A는 “근대 과학은 권위 대신 증거·이성으로 선다”, B는 “이성이 감각을 넘어 진리를 잡는다”고 한다. 둘 다 지식의 근거는 이성이라는 말이다 — 권위(A)든 감각(B)든, 이성이 그것을 넘어 진리를 세운다.

근거 무관 문장·빈칸, 이렇게 푼다

유형	이 단원에서 얻는 규칙
무관 문장(A)	같은 단어의 반대 주장 — “이성+경험”에 ㉠(경험 버림)는 이탈
빈칸[3점](B)	빈칸은 글의 결론 재진술 — 진실은 지각 아닌 이성적 재현에

무관 문장은 “방향”, 빈칸은 “결론”. 같은 소재어에 낱이지 않는다.

다음에 만날 얼굴 — 표현으로 외운다

알아둘 것	지문에 나타나는 얼굴
증거의 말	evidence · reason · authority · proclamation · dogma · deduction · empirical
이성의 말	rational knowledge · illusions · representation · supremacy · perception
숨은 뜻	authority=권위 · dogma=교리 · representation=재현
문항의 표지	무관 문장=논지 방향 · 빈칸=결론 재진술

- ✓ 근대 과학은 권위 대신 증거·이성에서 출발(㉠의 “경험 버림”만 이탈)(A).
- ✓ 무관 문장은 같은 단어의 반대 주장 — 방향으로 가른다.
- ✓ 이성이 감각을 넘어 진리를 잡는다 — 이성적 재현에 진실(B).
- ✓ 지식의 근거는 이성 — 권위(A)·감각(B)을 넘어선다.

다음 단원 예고 — 고3편 UNIT 09로 이어진다. PART 2 「지식은 어떻게 서는가」의 다음 장면을 본다.

도덕은 결국 나에게도 이롭다.

BEFORE

도덕은 나를 희생하는 손해이고, 옳고 그름은 분명하다 여긴다.

AFTER

두 지문은 도덕·규범의 근거를 본다. 윤리 판단엔 회색지대가 있고(지문 A), 도덕은 상호성 체계라 결국 이롭다(지문 B). 규범은 손해가 아니라 입장료다.

들어가기 고3편 PART 2의 셋째 소재 — 도덕의 근거

지문 A는 비즈니스 윤리다 — 윤리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좋은 가치뿐 아니라 **지식·역량**이 필요하고, 언제 **규정·동료**에 기댈지 알아야 한다.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건 늘 **회색지대(gray areas)**가 있기 때문이다. 지문 B는 **도덕의 상호성**이다 — 도덕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의무처럼 보이나, 실은 **상호성 체계**의 일부다. 의무 준수가 **입장료**라면, 도덕적 제약도 **이익**을 낳는다 — 다만 그 이익은 **타인의 상호성**을 통해 온다.

A는 **어법**, B는 **빈칸**[3점] — 유형이 다르다.

이 단원에서 만날 두 지문

	지문 A	지문 B
출처	2022.9 고3 모평 · 어법	2018.10 고3 학평 · 빈칸[3점]
정답률	57%	25%
무엇을 보나	윤리 판단(회색지대)	도덕=상호성 체계
핵심	인식이 첫걸음	규범은 이익을 낳는다
열쇠 표현	ethical issue · gray areas · conduct	reciprocity · duty · benefits

한 쌍이다 A는 “윤리 판단엔 회색지대가 있다”, B는 “도덕은 상호성이라 결국 이롭다”고 한다. 둘 다 **도덕·규범의 근거**를 묻는다 — 판단은 어렵지만(A), 규범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의 체계(B)다.

0 · 이 단원의 배경지식

개념 1 윤리 판단 — 인식과 회색지대 (지문 A)

윤리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윤리 문제를 알아보는” 것이다.

윤리 문제 —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필요 — 좋은 가치 + 업무 지식·역량

규정·동료·관리자에 언제 기댈지도 알아야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건 늘 회색지대(gray areas)가 딜레마를 만들기 때문 — 내부고발? 안전 결함 은폐? 같은 물음이 그렇다.

개념 2 도덕 = 상호성 체계 (지문 B)

도덕은 나를 희생하는 손해처럼 보이나, 상호성 체계의 일부다.

도덕 — 남의 이익을 위해 내 손해를 감수하는 의무

그러나 홀로가 아니라 일반화된 상호성의 일부

이 체계는 모두에게 이익(도덕 걱정 없는 자유 등)

의무 준수가 입장료라면 도덕적 제약도 이익을 낳는다 — 신중함(prudence)과 다른 점은, 그 이익이 타인의 상호성(나의 준수 덕분에)을 통해 온다는 것.

× 통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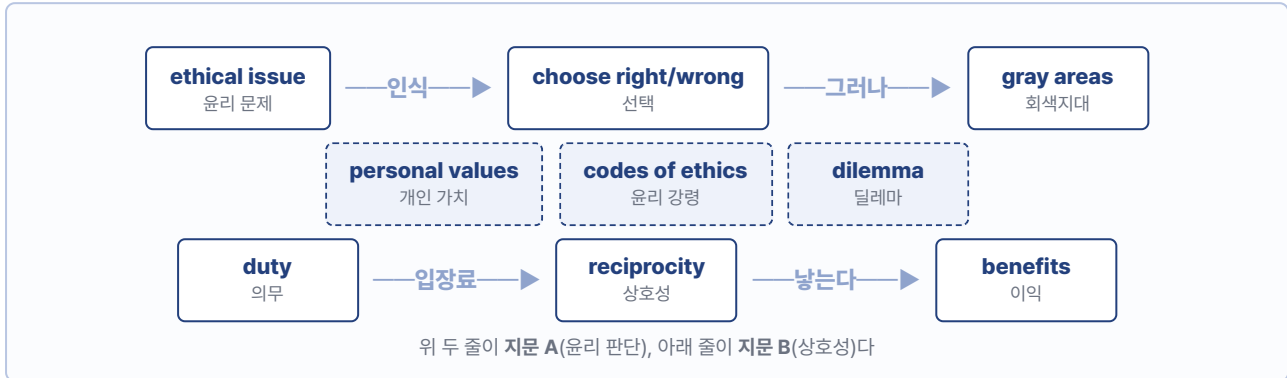
○ 지문이 말하는 것

옳고 그름은 분명	회색지대가 늘 있다 (A)
도덕은 순전한 손해	이익을 낳는 체계 (B)
규범은 나를 옳맴	체계의 입장료 (B)

두 지문의 공통 뿌리 — “규범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의 체계다.” A는 판단의 어려움(회색지대)을, B는 도덕이 상호성으로 이름다는 근거를 본다.

1 · 주제 어휘망 — 판단의 말과 상호성의 말

먼저 이 단원 어휘는 **두 갈래**다. **윤리 판단**의 말(ethical issue · gray areas · conduct)과 **상호성**의 말(reciprocity · duty · benefits). 둘 다 **“도덕의 근거”**다.



두 지문이 “도덕의 근거”를 두 각도로 본다

	지문 A (고3)	지문 B (고3)
주제	윤리 판단	상호성 체계
어려움/근거	회색지대	이익은 타인 통해
결론	인식이 첫걸음	규범은 입장료
문항 유형	어법 — 밑줄 5곳	빈칸[3점] — mediated ____

이 단원의 열쇠 대비 — A의 판단 → 회색지대, B의 도덕 → 상호성·이익. 둘 다 **“규범의 근거”**를 묻는 하나로 모인다.

2 · 지문 A — 윤리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2022.9 고3 모평 · 어법

정답률 57%

8문장 · 평균 22토큰

Recognizing ethical issues is the most important step in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 An ethical issue is an identifiable problem, situation, or opportunity that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that may ㉠ be evaluated as right or wrong, ethical or unethical. ㉡ Learn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 decision requires not only good personal values, but also knowledge competence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 Employees also need to know when to rely on their organizations' policies and codes of ethics or ㉢ have discussions with co-workers or managers on appropriate conduct. Ethical decision making is not always easy because there are always gray areas ㉣ that create dilemmas,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For instance, should an employee report on a co-worker engaging in time theft? Should a salesperson leave out facts about a product's poor safety record in his presentation to a customer? Such questions require the decision maker to evaluate the ethics of his or her choice and decide ㉤ whether to ask for guidance.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어법을 정하는 법 ㉡가 든 문장의 주어가 되려면 동명사여야 한다 — **Learning** how to choose ... **requires**. **Learn**(동사원형)은 주어가 될 수 없다. 정답 ②.

왜 ㉡인가 주어 자리엔 동명사문장 — [??] ... **requires** not only values but also knowledge주어 자리 — 동사 **requires**의 주어가 필요㉡ Learn(원형) — 주어가 될 수 없다 → **Learning**(동명사)

규칙 하나 — 문장 맨 앞 주어 자리에 동사가 오면 동명사/to부정사여야 한다. ㉠ be evaluated·㉢ have(병렬)·㉣ that(관계사)·㉤ whether(명사절)는 모두 정상.

2-1 · 의미론적 끊어읽기

무엇이 주어 어떻게 본동사 언제·왜 지워도 되는 곳 그게 뭔데 다시 설명 뒤집기 논지 전환

① ② ③ 윤리 판단의 조건 **전반****첫걸음**

Recognizing ethical issues is the most important step; an ethical issue requires choosing right/wrong actions.

윤리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 — 윤리 문제는 옳고 그른 행동의 선택을 요구한다.

필요

Learning to choose **requires** good values **and** knowledge competence; know when to rely on codes or discuss with others.

선택을 배우는 것은 좋은 가치와 업무 지식을 요구한다 — 규정·동료에 언제 기댈지도 알아야.

Learning ... requires — ⑥의 자리 문장의 주어는 “선택을 배우는 것(Learning to choose)”이고 본동사는 **requires**다. 그래서 ⑥는 **Learn**이 아니라 **Learning**(동명사)이어야 한다.

④ ⑤ 회색지대의 어려움 **핵심****어렵다**

Ethical decisions are hard because there are always **gray areas that create dilemmas**.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건 늘 딜레마를 만드는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gray areas — 판단의 핵심 어려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회색지대가 늘 있다. 그래서 인식·지식·조언이 필요하다 — 다음의 두 예(내부고발·안전 결함)가 그 회색지대다.

⑥⑦⑧ 회색지대의 예 **예시**

예

Should an employee **report a co-worker's time theft**? Should a salesperson **leave out a poor safety record**? Such questions require evaluating the ethics and deciding whether to ask for guidance.

동료의 근무 시간 도둑질을 신고할까? 판매원이 **안전 결함을 숨길까**? 이런 물음은 윤리를 평가하고 조언을 구할지 결정하게 한다.

Should ...? — 회색지대의 구체화 두 물음 모두 **정답이 자명하지 않다** — 회색지대다. 그래서 **인식·평가·조언**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글의 결론이다.

정체 고3 57% — 주어 자리의 준동사

㉠ be evaluated — actions that **may be evaluated**(조동사+수동, 정상)

㉡ have — rely on codes **or have** discussions(병렬, 정상)

㉢ Learn — **주어 자리**인데 원형 → Learning(오류)

규칙 하나 — 어법은 “이 절의 주어·본동사”부터 잡는다. 긴 문장 맨 앞의 동사(Learn)가 주어 노릇을 하면 동명사여야 한다.

한 줄로 윤리는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늘 회색지대가 있어 좋은 가치·지식·조언으로 판단해야 한다.